

WEBVTT

00:00:09.870 --> 00:00:14.638
폴면 백점 맞는 폴백 현대 문법,
이번에 5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14.738 --> 00:00:18.204
지난 시간까지는 음운
공부했던 말이에요.

00:00:18.304 --> 00:00:21.319
음운이라는 거는 말소리와
관련된 영역입니다.

00:00:21.419 --> 00:00:23.924
그런데 그 말소리와 관련된
영역은 이제 끝났고.

00:00:24.024 --> 00:00:26.324
독립적인 파트가 진행이 됩니다.

00:00:26.424 --> 00:00:29.405
되게 중요한 부분, 그리고
문제로 나왔을 때

00:00:29.505 --> 00:00:33.961
일단 떨 수밖에 없는 그런
부분이 이쪽 형태론인데.

00:00:34.061 --> 00:00:37.283
품사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면

00:00:37.383 --> 00:00:41.606
여러분이 나중에 문장 성분 넘어갈
때는 껌이에요, 너무 쉬워요.

00:00:41.706 --> 00:00:44.411
그래서 일단 품사
부분이 정말 중요하고

00:00:44.511 --> 00:00:48.952
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보다 자세한
수업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

00:00:49.052 --> 00:00:50.838
그러니까 가장 깊이있게,

00:00:50.938 --> 00:00:54.202
사실 지엽적이라고 여길 만한
부분까지 다 들어갈 거니까

00:00:54.302 --> 00:00:57.605
그렇게 알고 각오하고
외울 거 외워야 됩니다.

00:00:57.705 --> 00:01:00.043
문법은 외워야 점수가
나오는 것이죠.

00:01:00.143 --> 00:01:03.077

그래서 풀면 백점 맞는 이유가 뭐냐?
외웠으니까.

00:01:03.177 --> 00:01:04.149
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

00:01:04.249 --> 00:01:07.368
그러나 범위가 정해져 있기
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.

00:01:07.468 --> 00:01:10.023
같이 해봅시다, 제가
쉽게 설명드릴게요.

00:01:10.123 --> 00:01:15.473
우선 품사 부분에서 첫 번째로
공부해야 될 거는 체언인데.

00:01:15.573 --> 00:01:19.165
체언 부분을 공부하기
이전에 품사가 뭐냐,

00:01:19.265 --> 00:01:22.867
그리고 품사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
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

00:01:22.967 --> 00:01:26.645
그래서 일단 품사의
구분부터 잡아보도록 하죠.

00:01:26.745 --> 00:01:29.444
품사를 한번 분류해보려고 합니다.

00:01:29.544 --> 00:01:33.265
일단 국어의 품사가
몇 개나 있습니까?

00:01:33.365 --> 00:01:34.797
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.

00:01:34.897 --> 00:01:40.019
국어의 품사는 9개죠,
9개의 품사가 있습니다.

00:01:40.119 --> 00:01:41.859
영어랑 헷갈리면 안 돼요.

00:01:41.959 --> 00:01:45.498
여러분의 사전 지식을
 물어보도록 할까요?

00:01:45.598 --> 00:01:49.490
우선 3개의 문제를
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49.590 --> 00:01:58.743
첫 번째, 사과 열 개라고
할 때 이 열의 품사 뭐예요?

00:01:58.843 --> 00:02:02.943
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

통해서 대답해주시면 됩니다.

00:02:03.043 --> 00:02:06.307
사과 열 개, 열의 품사가 될까요?

00:02:06.407 --> 00:02:18.031
2번, 그러나, 그래서
이놈들도 단어인데

00:02:18.131 --> 00:02:22.586
이러한 단어들의 품사는 될까요?

00:02:25.486 --> 00:02:44.187
세 번째, 이 단어에서 이
밝는다 같은 경우에는

00:02:44.287 --> 00:02:51.594
여러분이 사전을 찾을 때는
밝다를 찾아야 되겠죠.

00:02:51.694 --> 00:02:54.230
밝는다는 사전에서 찾으려면
당연히 안 나오죠.

00:02:54.330 --> 00:02:59.806
그러면 밝다를 사전에서 찾아야
되는데 이놈의 품사는 무엇일까?

00:02:59.906 --> 00:03:03.323
여기에 대해서 너무나
당연하게 대답을 해줘야

00:03:03.423 --> 00:03:06.209
여러분이 기초가 잘
잡혔다고 생각할 수 있고.

00:03:06.309 --> 00:03:09.343
어느 정도 품사에 대한 지식도
있겠구나,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.

00:03:09.443 --> 00:03:11.979
먼저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3:12.079 --> 00:03:15.609
사과 열 개, 선생님
이거 수 개념이잖아요?

00:03:15.709 --> 00:03:17.582
수사, 그 정도 알아요.

00:03:17.682 --> 00:03:19.802
땡, 수사는 아닙니다.

00:03:19.902 --> 00:03:23.008
맞은 분도 있겠지만
수관형사라고 해요.

00:03:23.108 --> 00:03:25.278
애가 정체가 뭘니까?

00:03:25.378 --> 00:03:30.441

뒤에 나와 있는 이 개라는
명사를 꾸며줍니다.

00:03:30.541 --> 00:03:35.194
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를
우리는 관형사라고 표현하는데

00:03:35.294 --> 00:03:37.825
수의 개념으로 수사만
있는 게 아니라

00:03:37.925 --> 00:03:41.023
관형사도 수의 개념이
적용되는 놈이 있습니다.

00:03:41.123 --> 00:03:44.752
그래서 이놈은 관형사가 되겠고요.

00:03:44.852 --> 00:03:46.641
품사는 관형사.

00:03:46.741 --> 00:03:50.616
그러나, 그래서에서
접속사를 이야기하면

00:03:50.716 --> 00:03:53.916
국어의 품사가 뭐가 있는지
전혀 모르고 있는 건데.

00:03:54.016 --> 00:03:56.502
국어에는 접속사라는
개념이 전혀 없죠.

00:03:56.602 --> 00:04:00.012
대신에 접속해주는
부사는 존재합니다.

00:04:00.112 --> 00:04:03.052
일명 접속부사, 또는 접속조사가
존재할 수 있는데.

00:04:03.152 --> 00:04:07.313
조사는 사실 체언 뒤에 붙이는
거니까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고

00:04:07.413 --> 00:04:09.843
얘는 부사에 해당하고요.

00:04:09.943 --> 00:04:16.296
그다음 밝다는 단어는 어둡다, 밝다

00:04:16.396 --> 00:04:18.217
그러면 품사가 형용사이지 않습니까?

00:04:18.317 --> 00:04:19.726
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.

00:04:19.826 --> 00:04:26.237
지금 이 밝다는 단어의
품사는 형용사도 있지만

00:04:26.337 --> 00:04:28.234
동사도 있어요.

00:04:28.334 --> 00:04:30.286
그래서 일부 단어들은 품사가

00:04:30.386 --> 00:04:33.037
2개 또는 3개까지 가지고
있는 단어들이 있는데

00:04:33.137 --> 00:04:35.667
일명 그거는 품사 통용이라는
표현을 쓸 거고

00:04:35.767 --> 00:04:39.219
그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, 우리
품사 다 공부하고 나서 할 텐데.

00:04:39.319 --> 00:04:43.745
적어도 이 문장 내에서의
밝다는 뭐로 쓰인 것이냐.

00:04:43.845 --> 00:04:46.883
바로 이 동사로 쓰였다는
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00:04:46.983 --> 00:04:48.889
어떻게 아냐고요? 정보가 있는데.

00:04:48.989 --> 00:04:53.772
여기 는다, 라는 현재형
종결 어미 덕분에

00:04:53.872 --> 00:04:56.586
우리는 이놈이 동사라는
단서를 알게 된 겁니다.

00:04:56.686 --> 00:04:57.930
어떻습니까?

00:04:58.030 --> 00:05:02.120
지금 이 3개의 문제를 드렸는데 틀린
친구들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

00:05:02.220 --> 00:05:05.375
아직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
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니까

00:05:05.475 --> 00:05:09.437
우리 여기에서 이런 것들 알아나가는
과정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00:05:09.537 --> 00:05:14.930
일단 품사들은 2번 몰랐던 친구,
국어에 접속사 없잖아요?

00:05:15.030 --> 00:05:17.082
뭐뭐 있는지 확인해보도록
하겠습니다.

00:05:17.182 --> 00:05:23.816

국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는 처음에는
형태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.

00:05:23.916 --> 00:05:25.801
양분할 수가 있고요.

00:05:25.901 --> 00:05:31.179
그다음에 그놈들의 기능에 따라서
조금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.

00:05:31.279 --> 00:05:35.037
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미
단위까지를 쪼개게 되면

00:05:35.137 --> 00:05:36.975
이렇게 해서 9개가
나올 수 있거든요.

00:05:37.075 --> 00:05:41.680
그래서 형태로 쪼개면 크게
2개로 나눌 수가 있겠고

00:05:41.780 --> 00:05:45.540
그다음에 기능으로 따지게
되면 5개로 쪼갤 수 있으며

00:05:45.640 --> 00:05:48.239
의미로 따지면 9개까지
나뉘어지게 됩니다.

00:05:48.339 --> 00:05:50.330
우리는 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

00:05:50.430 --> 00:05:52.592
의미 단위로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?

00:05:52.692 --> 00:05:55.212
먼저 명사,

00:05:55.312 --> 00:05:58.264
다음 대명사,

00:05:58.364 --> 00:06:03.835
다음 수사, 라고 하는 것이 있죠.

00:06:03.935 --> 00:06:10.308
그다음에 이놈들은 전부 다 묶어서
기능적으로 표현했을 때 몸이 되는 말.

00:06:10.408 --> 00:06:13.836
우리 이번 시간에도 공부하는 내용이
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,

00:06:13.936 --> 00:06:16.158
체언입니다.

00:06:16.258 --> 00:06:19.577
이때 체 자가 몸 체 자,
그래서 몸이 되는 말이다.

00:06:19.677 --> 00:06:21.799

그래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,

00:06:21.899 --> 00:06:24.974

이런 데에 이름으로
쓰이는 표현들, 명사.

00:06:25.074 --> 00:06:27.283

그 이름을 대신하는 거를 대명사,

00:06:27.383 --> 00:06:29.521

수개념 나오면 수사가 되는 겁니다.

00:06:29.621 --> 00:06:39.152

그리고 여기에 서술성을 띠고
있는 동사와 형용사가 존재하죠.

00:06:39.252 --> 00:06:44.586

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
우리는 쓸 용 자,

00:06:44.686 --> 00:06:49.192

쓸 수 있는 놈들이라고 해서
용언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.

00:06:49.292 --> 00:06:55.786

그다음 수식해주는 기능을 가지고
있는 품사들이 있는데 볼까요?

00:06:55.886 --> 00:06:58.995

먼저 관형사라는 것이 있고요.

00:06:59.095 --> 00:07:01.400

여기서 미리 한번
정리해보도록 할게요.

00:07:01.500 --> 00:07:04.762

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꾸며주는데
뭐를 꾸며 주느냐?

00:07:04.862 --> 00:07:07.165

바로 이 체언을
꾸며주는 기능을 해요.

00:07:07.265 --> 00:07:10.129

그런데 살펴보면 대명사나
수사 같은 거는 꾸미는 게

00:07:10.229 --> 00:07:11.567

좀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.

00:07:11.667 --> 00:07:13.340

그래서 일단 저는
이렇게 정리할게요.

00:07:13.440 --> 00:07:20.570

관형사는 꾸며주는 게 주로 명사를
꾸며준다고 보면 됩니다.

00:07:20.670 --> 00:07:25.666

체언을 꾸미는데 그중에서도
주로 명사 꾸미는데.

00:07:25.766 --> 00:07:29.351
그래서 여러분이 이놈 관형사인가
아닌가를 확인하려면

00:07:29.451 --> 00:07:30.973
명사를 꾸며주는 데 써봐야지

00:07:31.073 --> 00:07:34.226
자꾸 대명사, 수사 꾸미면 안
맞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.

00:07:34.326 --> 00:07:39.636
그다음에 부사는 뭐를 꾸며주느냐?

00:07:39.736 --> 00:07:43.988
용언을 꾸민다고 볼 수 있는데
이제 이 부사가 독특해서

00:07:44.088 --> 00:07:45.792
용언만 꾸미지는 않습니다.

00:07:45.892 --> 00:07:47.719
부사 꾸미기도 하고
체언 꾸미기도 하고.

00:07:47.819 --> 00:07:51.646
그래서 선생님은 미리 단서로
주로 뭐를 꾸며준다?

00:07:51.746 --> 00:07:53.417
용언을 꾸며준다.

00:07:53.517 --> 00:07:55.556
그런데 용언만 꾸미는
거는 아니라는 단서예요.

00:07:55.656 --> 00:08:00.685
용언을 수식한다.

00:08:00.785 --> 00:08:05.268
그러면 애네들을 묶어서
수식해주는 말이라고 했으니까

00:08:05.368 --> 00:08:08.532
수식언이라고 불러줄 겁니다.

00:08:08.632 --> 00:08:11.884
그래서 주로 명사를 수식해주고
용언을 수식해주는 놈이

00:08:11.984 --> 00:08:14.499
바로 관형사와 부사라고
볼 수 있고요.

00:08:14.599 --> 00:08:21.965
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일 수
놈이 있으니 감탄사라고 합니다.

00:08:22.065 --> 00:08:29.793
감탄사는 바로 독립언이라고

불러줄 거고요.

00:08:29.893 --> 00:08:33.762
그다음에 마지막이 조사인데,

00:08:33.862 --> 00:08:38.677
우리 국어를 다른 나라 영어나
아니면 중국어와 관련지었을 때

00:08:38.777 --> 00:08:41.482
차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
바로 이거예요.

00:08:41.582 --> 00:08:43.736
조사, 그리고 용언에서의
활용하는 어미

00:08:43.836 --> 00:08:45.935
이런 것들이 자유롭게
붙을 수 있다는 건데.

00:08:46.035 --> 00:08:50.406
영어로 조사 있습니까?
중국어에 조사가 있나요?

00:08:50.506 --> 00:08:51.628
개네들은 조사가 없어요.

00:08:51.728 --> 00:08:55.562
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위치가 바뀌면
아예 말이 안 되는 문장이거나

00:08:55.662 --> 00:08:57.971
아니면 뜻이 달라지는
문장이 형성되지만

00:08:58.071 --> 00:08:59.907
가령 우리는 조사라는 게 껴요.

00:09:00.007 --> 00:09:01.134
조사가 뭔지 알잖아요.

00:09:01.234 --> 00:09:05.262
은, 는, 이, 가, 을, 를
이런 것들 조사에 해당하는데.

00:09:05.362 --> 00:09:10.998
외국인이 와서 나는 책을 읽어요,
라고 문장을 이야기한다면

00:09:11.098 --> 00:09:13.161
되게 어순을 잘 이야기해준 겁니다.

00:09:13.261 --> 00:09:16.838
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단어는
외웠는데 어순은 잘 몰라.

00:09:16.938 --> 00:09:19.419
그래서 읽어요, 나는 책을.

00:09:19.519 --> 00:09:21.029

이렇게 해도 우리는 다 이해해요.

00:09:21.129 --> 00:09:22.824

또 책을 읽어요, 나는.

00:09:22.924 --> 00:09:24.539

이렇게 해도 이해가 됩니다.

00:09:24.639 --> 00:09:27.499

왜냐하면 일단 책을, 이라는

00:09:27.599 --> 00:09:32.421

책과 음이 함께 묶여있는
상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

00:09:32.521 --> 00:09:35.692

위치가 어디에 있든지
간에 이 음이라는 놈이

00:09:35.792 --> 00:09:38.089

목적어임을 알려주는 단서거든요.

00:09:38.189 --> 00:09:40.834

그래서 이게 목적어라는 것을
우리가 알아듣는 거죠.

00:09:40.934 --> 00:09:45.290

또 읽어요, 라고 하면 읽어
할 때 어가 끼여있기 때문에

00:09:45.390 --> 00:09:47.148

이거 문장 마무리지었구나,
라는 것을

00:09:47.248 --> 00:09:49.521

위치가 어디에 있든지
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

00:09:49.621 --> 00:09:52.828

그래서 우리나라 말 같은
경우에는 조사, 어미

00:09:52.928 --> 00:09:54.401

이런 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

00:09:54.501 --> 00:09:56.708

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
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.

00:09:56.808 --> 00:10:01.407

바로 이 조사가 붙는 거에 따라서
이게 체언이 앞에 있는지

00:10:01.507 --> 00:10:04.293

체언이 주어로 쓰이는지
목적어로 쓰이는지

00:10:04.393 --> 00:10:05.998

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10:06.098 --> 00:10:08.076

그래서 이런 놈들을
뭐라고 불러주느냐?

00:10:08.176 --> 00:10:11.024
관계언이라고 불러줄 거예요.

00:10:11.124 --> 00:10:13.750
그러면 벌써 두 가지가
해결이 됐네요.

00:10:13.850 --> 00:10:16.917
먼저 국어의 품사는 의미에
따라서 9가지로 나뉩니다.

00:10:17.017 --> 00:10:18.962
사물의 이름을 칭하고 있는 명사.

00:10:19.062 --> 00:10:21.556
그다음에 그 이름을 대신
표현해 줄 수 있는 대명사.

00:10:21.656 --> 00:10:23.873
주로 수개념인 수사.

00:10:23.973 --> 00:10:26.955
동작을 나타내주는 과정을
나타내주는 동사.

00:10:27.055 --> 00:10:29.167
그다음에 형태를 나타내주고

00:10:29.267 --> 00:10:32.139
상황을 정적인 모습을
서술할 수 있는 형용사.

00:10:32.239 --> 00:10:36.225
그다음에 주로 체언을 꾸미고
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.

00:10:36.325 --> 00:10:38.228
그다음 용언을 주로 꾸미되

00:10:38.328 --> 00:10:42.342
다른 체언이나 또는 부사, 관형사도
꾸밀 때가 있는 이 부사.

00:10:42.442 --> 00:10:44.811
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여서

00:10:44.911 --> 00:10:48.183
느낌이나 정서 상태를 표출해줄
수 있는 감탄사가 있고.

00:10:48.283 --> 00:10:53.339
체언 등에 뒤에 붙어서 문장 성분을
결정지어줄 수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.

00:10:53.439 --> 00:10:55.911
이렇게 해서 9가지가
정리가 됐고요.

00:10:56.011 --> 00:10:59.706

애네들을 기능에 따라 묶어주면
몸이 되는 말, 체언.

00:10:59.806 --> 00:11:01.889

그다음에 쓰임 받는다, 용언.

00:11:01.989 --> 00:11:03.442

꾸며준다, 수식언.

00:11:03.542 --> 00:11:05.194

독립적으로 쓰인다, 독립언.

00:11:05.294 --> 00:11:07.500

그리고 관계를 맺어준다고
해서 관계언.

00:11:07.600 --> 00:11:10.038

그래서 두 번째
기능까지 만들어줬죠.

00:11:10.138 --> 00:11:11.658

이제 마지막은 뭐냐?

00:11:11.758 --> 00:11:13.393

형태에 따라 나눠주게 되는데,

00:11:13.493 --> 00:11:18.350

형태는 고정되어있는 형태냐,
아니면 변할 수 있느냐.

00:11:18.450 --> 00:11:21.073

바뀔 수 있느냐에 따라서
나뉘는 겁니다.

00:11:21.173 --> 00:11:22.897

그래서 어떻게 쪼개주냐면

00:11:22.997 --> 00:11:28.706

형태는 이렇게 쪼개주면 돼요.

00:11:28.806 --> 00:11:35.064

그래서 위쪽은 바로 다 묶어서
형태가 고정되어있다고 해서

00:11:35.164 --> 00:11:38.744

불변화라고 묶어줍니다.

00:11:38.844 --> 00:11:41.816

변하지 않는다는 거죠, 모양이
고정돼있다는 겁니다.

00:11:41.916 --> 00:11:50.425

그런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
가변어라고 불러줘요.

00:11:50.525 --> 00:11:51.891

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11:51.991 --> 00:11:52.799

한번 정리해볼까요?

00:11:52.899 --> 00:11:57.826

동사나 형용사의 경우
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.

00:11:57.926 --> 00:12:02.142

오늘 체언을 공부하기는 하지만

00:12:02.242 --> 00:12:05.664

문법이라는 거는 서로 얽혀있는
그물망과 같은 거예요.

00:12:05.764 --> 00:12:09.195

그래서 뒤에서 한번 다뤄야 할
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

00:12:09.295 --> 00:12:12.519

다시 끄집어와서
이야기를 할 겁니다.

00:12:12.619 --> 00:12:16.037

그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
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

00:12:16.137 --> 00:12:17.802

그중에 첫 번째 거,

00:12:17.902 --> 00:12:21.570

다다음 시간에 공부해야
될 용언 부분이거든요.

00:12:21.670 --> 00:12:25.293

그래서 용언 부분의 일부 내용을
지금 살짝 설명을 드릴 거예요.

00:12:25.393 --> 00:12:34.215

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로
나뉜다고 했습니다.

00:12:34.315 --> 00:12:38.186

그런데 이 용언은 활용이
될 수 있기 때문에

00:12:38.286 --> 00:12:40.586

형태소를 쪼갤 수가 있단 말이에요.

00:12:40.686 --> 00:12:44.383

이 형태소라는 거는 의미를 가지는
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 건데,

00:12:44.483 --> 00:12:45.553

어렵지는 않습니다.

00:12:45.653 --> 00:12:49.798

가령 우리 사전에서
떡다를 찾아볼까요?

00:12:49.898 --> 00:12:51.756

찾아지는 단어이죠.

00:12:51.856 --> 00:12:55.445

그다음에 형용사 쪽으로
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2:55.545 --> 00:12:59.584
형용사 쪽에서 높다, 라는
단어도 찾아지는 단어죠.

00:12:59.684 --> 00:13:02.916
애는 지금 동사이고

00:13:03.016 --> 00:13:05.482
애는 지금 형용사인데이.

00:13:05.582 --> 00:13:09.305
사전에서 애네들은 먹다나
높다를 찾아봤을 때

00:13:09.405 --> 00:13:10.838
그 뜻풀이가 나오게 되어있어요.

00:13:10.938 --> 00:13:13.955
그런데 이 먹다나 높다로만
쓸 수 있는 게 아니라

00:13:14.055 --> 00:13:16.304
애네들이 활용이 되잖아요?

00:13:16.404 --> 00:13:19.730
그래서 꼭 마무리할 때 먹다
하고 마침표 쓸 필요 있습니까?

00:13:19.830 --> 00:13:22.664
예를 들면 먹냐?
물어보는 거잖아요.

00:13:22.764 --> 00:13:24.998
높냐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

00:13:25.098 --> 00:13:28.934
그다음에 먹네, 잘 먹네.

00:13:29.034 --> 00:13:31.998
그다음에 산 되게 높네, 이렇게
마무리지을 수 있잖아요.

00:13:32.098 --> 00:13:37.448
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
연결해줄 수 있는 거.

00:13:37.548 --> 00:13:43.596
그다음에 먹어서, 높아서
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데.

00:13:43.696 --> 00:13:48.886
어서나 아서 같은 경우에는 모음
조화 현상과 관련된 요소죠.

00:13:48.986 --> 00:13:51.337
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성
모음이 걸려 있기 때문에

00:13:51.437 --> 00:13:53.387

음성, 양성 이런
개념은 알고 있지만

00:13:53.487 --> 00:13:55.437

여기에는 음성 모음
연결해서 먹어서.

00:13:55.537 --> 00:13:59.366

그다음에 양성 모음의 \uparrow 와 양성
모아 \uparrow 를 결합해서 높아서.

00:13:59.466 --> 00:14:00.766

이렇게 잡아주는 거죠.

00:14:00.866 --> 00:14:03.139

이 둘은 서로 같은 기능을
갖고 있는 놈은 맞죠.

00:14:03.239 --> 00:14:06.646

그다음에 먹지, 높지 않았어.

00:14:06.746 --> 00:14:08.260

이렇게 이야기할 때 쓸 수 있고요.

00:14:08.360 --> 00:14:13.867

그다음에 먹을, 높을 이런 식으로.

00:14:13.967 --> 00:14:16.160

먹던, 높던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?

00:14:16.260 --> 00:14:18.014

이런 것들도 있겠고요.

00:14:18.114 --> 00:14:25.316

그다음에 먹음, 높음,
먹게 해라, 높게 되었다.

00:14:25.416 --> 00:14:28.689

이런 식으로 등등, 엄청 많죠.

00:14:28.789 --> 00:14:31.651

높도록, 먹도록 등등.

00:14:31.751 --> 00:14:36.282

지금 뒤쪽 부분을 계속
변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

00:14:36.382 --> 00:14:40.280

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
오늘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.

00:14:40.380 --> 00:14:42.473

무려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.

00:14:42.573 --> 00:14:47.294

이런 놈들을 뭐라고 하면
어미라고 불러줄 거예요.

00:14:47.394 --> 00:14:49.877

어미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된다?

00:14:49.977 --> 00:14:59.489

용언에서 활용되는 부분을
우리는 어미라고 한다.

00:14:59.589 --> 00:15:05.706

이 앞쪽 부분을 어간이라고
부를 거거든요.

00:15:05.806 --> 00:15:10.522

이 어간은 그냥 활용되지 않는
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.

00:15:10.622 --> 00:15:16.226

어미 아닌 부분, 이렇게
생각하면 편할 겁니다.

00:15:16.326 --> 00:15:20.076

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을 때

00:15:20.176 --> 00:15:23.367

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

00:15:23.467 --> 00:15:40.892

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
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하면

00:15:40.992 --> 00:15:45.490

뭐가 나오는 것이다?
어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.

00:15:45.590 --> 00:15:50.533

사전에 사실 먹다, 먹냐, 먹네,
먹어서, 먹지, 먹음, 먹게, 먹도록

00:15:50.633 --> 00:15:52.545

이런 거를 사전에 다 등재할
수는 없는 거예요.

00:15:52.645 --> 00:15:56.206

쓸 수는 있는데 그중에
대표적인 거로 다를 넣어서

00:15:56.306 --> 00:15:59.344

사전에 등재를 해주는 거지
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.

00:15:59.444 --> 00:16:02.254

그래서 이런 놈들은 이렇게
활용할 수 있지만

00:16:02.354 --> 00:16:04.429

그중에 대표로 다를 넣었을 뿐이고.

00:16:04.529 --> 00:16:06.670

따라서 우리는 사전에
찾아지는 단어 중에서

00:16:06.770 --> 00:16:09.203

다만 딱 떼면 어간이
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6:09.303 --> 00:16:12.028
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 활용되는
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?

00:16:12.128 --> 00:16:14.639
어미, 뭐라고요?
어미라고 부릅니다.

00:16:14.739 --> 00:16:18.228
그런데 이 용언의 어간하고
어미 이야기를 왜 하느냐?

00:16:18.328 --> 00:16:21.707
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간과
어미로 나뉘어진다는 거거든요.

00:16:21.807 --> 00:16:23.853
그러면 지금 이 용언.

00:16:23.953 --> 00:16:26.741
동사나 형용사는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
거를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,

00:16:26.841 --> 00:16:29.672
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

00:16:29.772 --> 00:16:32.931
제가 이렇게 살짝 조사를 걸쳤어.

00:16:33.031 --> 00:16:36.039
지금 선을 나누면서
불별어, 가변어를 나누는데

00:16:36.139 --> 00:16:39.305
이게 변할 수 없는 것들,
변할 수 있는 것들.

00:16:39.405 --> 00:16:43.161
가하다, 라고 해서 변할 수
있다는 것이 용언인데.

00:16:43.261 --> 00:16:48.211
조사를 살짝 걸쳤잖아요, 애매하게.

00:16:48.311 --> 00:16:51.048
우리가 다음 시간에는
조사를 공부해야 되는데

00:16:51.148 --> 00:16:54.648
그 조사에서 나뉘지는
세부 항목 중에서

00:16:54.748 --> 00:17:01.878
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어요.

00:17:01.978 --> 00:17:03.925
지금 기억합니다.

00:17:04.025 --> 00:17:07.330
-이다, 라는 서술격 조사가 있는데

00:17:07.430 --> 00:17:10.884

바로 이 서술격 조사
역시도 뒤에 속한다?

00:17:10.984 --> 00:17:13.748

여기에 나와 있는 가변어에
속한다는 겁니다.

00:17:13.848 --> 00:17:14.768

나머지는 안 돼요.

00:17:14.868 --> 00:17:18.750

나머지 조사 이, 가, 을, 를,
에게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.

00:17:18.850 --> 00:17:23.211

그러나 서술격 조사 -이다
만큼은 가변어에 속하는 것.

00:17:23.311 --> 00:17:26.116

그러니까 조사가 조금
쪼개지게 되는 거죠.

00:17:26.216 --> 00:17:27.807

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

00:17:27.907 --> 00:17:30.809

지금 서술격 조사를
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

00:17:30.909 --> 00:17:36.581

활용이 될 수 있는 용언처럼

00:17:42.819 --> 00:17:44.486

이렇게 붙을 수 있죠.

00:17:44.586 --> 00:17:52.016

예를 들면 나는 학생 더하기 서술격
조사 -이다가 붙은 거예요.

00:17:52.116 --> 00:17:54.826

그러면 학생이다, 라는 문장은

00:17:54.926 --> 00:17:56.991

당연히 사전에 찾으면
나올 수가 없죠.

00:17:57.091 --> 00:17:59.138

학생이다, 라는 단어가
있는 게 아니라

00:17:59.238 --> 00:18:01.317

학생 따로 찢어내서 명사 찾고

00:18:01.417 --> 00:18:04.405

이다를 따로 찾으면 서술격
조사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.

00:18:04.505 --> 00:18:07.040

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

되는 겁니까?

00:18:07.140 --> 00:18:12.219

학생이다, 학생이냐, 학생이네,
학생이어, 학생이지, 학생이던

00:18:12.319 --> 00:18:15.080

이때는 학생음이 아니에요.

00:18:15.180 --> 00:18:17.667

음이 못 오고 이때는
ㅁ이 올 거예요.

00:18:17.767 --> 00:18:20.230

그래서 학생임, 나는 학생임
이렇게 끝내는 거죠.

00:18:20.330 --> 00:18:22.495

그다음에 학생이게, 학생이도록

00:18:22.595 --> 00:18:24.995

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
수 있다는 겁니다.

00:18:25.095 --> 00:18:29.989

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서술격 조사도
어디까지가 어간이 되는 겁니까?

00:18:30.089 --> 00:18:33.998

그러면 학생이까지 어간으로
처리가 되는 거고

00:18:34.098 --> 00:18:37.970

역시나 기본형에서 활용이 되는
부분을 어미라고 보면 돼요.

00:18:38.070 --> 00:18:39.070

이해되셨죠?

00:18:39.170 --> 00:18:42.256

그러니까 여기 가변어와
불변어로 나눌 때

00:18:42.356 --> 00:18:45.148

용언이 뒤에 속한다? 가변어.

00:18:45.248 --> 00:18:47.926

그리고 서술격 조사
-이다까지 가변어에 속한다.

00:18:48.026 --> 00:18:49.981

이렇게 해서 품사의
분류를 해봤는데,

00:18:50.081 --> 00:18:53.752

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
품사를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8:53.852 --> 00:18:59.947

여러분, 잠깐 멈춰놓고 이거를
판단해보도록 할게요.

00:19:00.047 --> 00:19:01.914
답을 한번 볼까요?

00:19:02.014 --> 00:19:03.251
아! 폼사 뭐일까요?

00:19:03.351 --> 00:19:05.051
여기 9개 중에 하나일 텐데.

00:19:05.151 --> 00:19:06.860
아! 혼자 독립적으로 감탄.

00:19:06.960 --> 00:19:12.862
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으니까
애는 감탄사로 보면 되겠죠.

00:19:12.962 --> 00:19:16.159
그다음에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?

00:19:16.259 --> 00:19:18.417
그곳이 나와야 됩니다.

00:19:18.517 --> 00:19:22.096
그곳은 정확하게 그 지명을
이야기한 거는 아니에요.

00:19:22.196 --> 00:19:27.049
집에서도 아니고 학교에서도
아니고 한국에서도 아니고

00:19:27.149 --> 00:19:30.458
아니면 백화점에서도 아니고
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어요.

00:19:30.558 --> 00:19:33.410
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을
대체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

00:19:33.510 --> 00:19:37.214
애를 대명사라고 부르죠.

00:19:37.314 --> 00:19:41.700
그다음에 예서, 조사입니다.

00:19:41.800 --> 00:19:45.407
그다음에 새가 어떤 기능이죠?

00:19:45.507 --> 00:19:48.469
새가 옷을 꾸며주고 있군요.

00:19:48.569 --> 00:19:51.517
옷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

00:19:51.617 --> 00:19:56.414
재는 사전에 그대로 new의 뜻으로
등재가 되어있는 관형사가 되겠죠.

00:19:56.514 --> 00:20:01.748
그다음에 옷은 명사, 명사
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.

00:20:01.848 --> 00:20:04.101
을,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.

00:20:04.201 --> 00:20:06.717
그다음에 하나,
여기서는 뭐가 될까요?

00:20:06.817 --> 00:20:10.055
틀이 생략되어있는 구조가 되겠어요.

00:20:10.155 --> 00:20:13.275
그래서 여기 하나를,
이런 개념인데.

00:20:13.375 --> 00:20:20.206
즉 수를 나타내는 체언이기
때문에 수사가 됩니다.

00:20:20.306 --> 00:20:22.326
다음 더가 나왔죠.

00:20:22.426 --> 00:20:26.562
더가 뭐를 꾸며주죠?
사니를 꾸며주고 있어요.

00:20:26.662 --> 00:20:29.093
그러면 어떻게 된다?

00:20:29.193 --> 00:20:33.194
더는 부사.

00:20:33.294 --> 00:20:37.159
사다, 라는 동사를
꾸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

00:20:37.259 --> 00:20:39.699
용언을 꾸며주는 품사는
부사가 되겠습니다.

00:20:39.799 --> 00:20:42.219
사니는 사전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?

00:20:42.319 --> 00:20:45.583
사다를 찾아야 되고 사다는
아직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

00:20:45.683 --> 00:20:48.940
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
애는 지금 동사에 해당하고요.

00:20:49.040 --> 00:20:51.387
다음에 좋구나는 사전에서
뭐를 찾아야 된다?

00:20:51.487 --> 00:20:53.297
좋다를 찾아야 되겠고.

00:20:53.397 --> 00:20:56.417
자신의 감정 표출이기 때문에
애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.

00:20:56.517 --> 00:20:57.934

어떻게 다 맞았어요?

00:20:58.034 --> 00:21:02.110

이거 어렵지는 않은 거고 2학년
교과서에 문법 예문 하나입니다.

00:21:02.210 --> 00:21:04.590

그래서 이거로 문제를
살짝 풀어봤고요.

00:21:04.690 --> 00:21:06.883

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,

00:21:06.983 --> 00:21:08.551

이번 시간에는 체언을
공부해야 되거든요.

00:21:08.651 --> 00:21:12.809

체언 들어가도록 합니다.

00:21:20.484 --> 00:21:26.625

체언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.

00:21:26.725 --> 00:21:29.256

명사가 여기에 속했고요.

00:21:29.356 --> 00:21:31.333

그다음에 대명사,

00:21:31.433 --> 00:21:34.803

그다음에 마지막으로
수사로 쪼갠잖아요.

00:21:34.903 --> 00:21:38.218

그중에 첫 번째 명사에 대한
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1:38.318 --> 00:21:42.132

우선 기본적인 체언들의
속성을 좀 알려드릴게요.

00:21:42.232 --> 00:21:51.691

이 체언들은 보통 뒤에 뭐랑
결합되어 쓴다는 거를 볼 수 있죠?

00:21:51.791 --> 00:21:56.745

얘네들이 조사의 결합이 가능하다는
거를 알 수 있습니다.

00:21:56.845 --> 00:22:02.121

대표적으로 하나하나
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

00:22:02.221 --> 00:22:07.209

명사로 자동차 할 때 차.

00:22:07.309 --> 00:22:11.300

명사인 거 아시죠?

00:22:11.400 --> 00:22:19.005
그다음에 대명사로 뭐로 갈까요?

00:22:19.105 --> 00:22:20.496
나, 이렇게 가겠습니다.

00:22:20.596 --> 00:22:23.095
그러면 나는, 제가 지금
나라고 이야기했을 때

00:22:23.195 --> 00:22:24.867
선생님 이름이 송종민이잖아요.

00:22:24.967 --> 00:22:27.123
그러니까 송종민이 정식 이름이에요.

00:22:27.223 --> 00:22:29.548
그런데 이름을 대체해서
나는으로 표현했던 말이에요.

00:22:29.648 --> 00:22:32.697
그러면 이름을 대체하고
있는 체언이기 때문에

00:22:32.797 --> 00:22:34.331
이거를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.

00:22:34.431 --> 00:22:36.362
1인칭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.

00:22:36.462 --> 00:22:40.270
그다음에 수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.

00:22:40.370 --> 00:22:44.044
예를 들면 공 하나,
이렇게 표현한다면

00:22:44.144 --> 00:22:46.280
여기서의 하나가 바로
수사가 될 텐데.

00:22:46.380 --> 00:22:48.327
여기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겠죠.

00:22:48.427 --> 00:22:51.128
예를 들면 자동차가, 아니면 나가.

00:22:51.228 --> 00:22:52.884
잠깐만, 나가?

00:22:52.984 --> 00:22:55.764
나가, 라고 안 하고
우리는 어떻게 하죠?

00:22:55.864 --> 00:22:59.098
내가라고 하는데 이 나의
경우에는 형태 변화,

00:22:59.198 --> 00:23:03.836
불변어이기는 한데 이때는 특별한
놈으로 예외적인 거를 봅니다.

00:23:03.936 --> 00:23:06.604

그래서 일상 생활에서
그렇게 쓰잖아요.

00:23:06.704 --> 00:23:09.787

내가로 바꾸고 또는
나의, 라고 했을 때

00:23:09.887 --> 00:23:13.362

줄여서 내, 라고 표현할 수
있는 그게 몇 가지가 있죠.

00:23:13.462 --> 00:23:14.710

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.

00:23:14.810 --> 00:23:17.567

예를 들면 는 같은 거를 붙였다.

00:23:17.667 --> 00:23:19.651

변하지 않는 거로
예를 들어야겠네요.

00:23:19.751 --> 00:23:23.904

그러면 자동차는, 나는, 공
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.

00:23:24.004 --> 00:23:25.832

를 같은 거 붙였다.

00:23:25.932 --> 00:23:28.484

자동차를, 나를, 공 하나를
이렇게 쓸 수 있고요.

00:23:28.584 --> 00:23:30.570

그다음에 와를 붙였다.

00:23:30.670 --> 00:23:33.410

자동차와, 나와, 공 하나와
이렇게 쓸 수 있고요.

00:23:33.510 --> 00:23:36.232

그다음에 또 의 같은
것도 붙일 수 있겠죠.

00:23:36.332 --> 00:23:39.216

자동차의, 나의, 줄여서
내가 되겠네요.

00:23:39.316 --> 00:23:41.033

공 하나의, 이런 식으로
쓸 수 있고요.

00:23:41.133 --> 00:23:43.188

그다음에 이다 붙여서

00:23:43.288 --> 00:23:46.207

자동차이다, 나이다, 공 하나이다
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.

00:23:46.307 --> 00:23:51.174

이런 등등의 조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 게 체언입니다.

00:23:51.274 --> 00:23:57.119

그다음 이 체언의 성질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

00:23:57.219 --> 00:24:07.153

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

00:24:09.851 --> 00:24:12.572

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해야 돼.

00:24:12.672 --> 00:24:16.499

관형어의 수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

00:24:16.599 --> 00:24:21.575

그런데 이 관형어는 품사인 관형사보다 상위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.

00:24:21.675 --> 00:24:25.542

품사인 관형사보다 상위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

00:24:25.642 --> 00:24:28.466

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품사,

00:24:28.566 --> 00:24:30.691

단어 단위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.

00:24:30.791 --> 00:24:32.320

개념은 이렇습니다.

00:24:32.420 --> 00:24:37.526

형태소라는 가장 작은 단위가 더해졌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?

00:24:37.626 --> 00:24:39.650

단어 단위가 만들어지고

00:24:39.750 --> 00:24:43.661

바로 이 단어가 공부해야 될 9가지 품사와 관련되어있어요.

00:24:43.761 --> 00:24:46.944

그런데 이 단어 단위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

00:24:47.044 --> 00:24:51.102

합쳐져서 어절 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.

00:24:51.202 --> 00:24:53.402

어절이라는 거는 띄어쓰기 단위.

00:24:53.502 --> 00:25:00.840

이 어절이 바로 문장 성분을 결정짓는 최소 단위입니다.

00:25:00.940 --> 00:25:04.532

그리고 이것들이 모이게
되면 구나 절을 이루다가

00:25:04.632 --> 00:25:06.837

결국 문장 형태가 만들어지는데

00:25:06.937 --> 00:25:08.301

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.

00:25:08.401 --> 00:25:16.597

제가 말하려고 하는
것은 관형사라는 것은,

00:25:16.697 --> 00:25:19.196

선생님이 이거 품사가 뭐예요?
이렇게 물어보면

00:25:19.296 --> 00:25:21.378

지금은 그 품사를
틀릴 수는 있어요.

00:25:21.478 --> 00:25:24.804

만약에 명사를 물어봤는데
대명사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.

00:25:24.904 --> 00:25:28.952

동사인데 형용사라고
대답할 수 있어요.

00:25:29.052 --> 00:25:31.216

그거는 선생님이 괜찮다고 봐요.

00:25:31.316 --> 00:25:32.888

저도 그거 어려워요.

00:25:32.988 --> 00:25:36.623

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에게
이거 품사가 뭐예요?

00:25:36.723 --> 00:25:39.418

이렇게 물어보면 ~사요,
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.

00:25:39.518 --> 00:25:43.476

만약에 그거를 주어요, 이렇게
대답하면 아예 개념을 모르는 거죠.

00:25:43.576 --> 00:25:45.812

왜냐하면 단어를 물어봤을 때에는

00:25:45.912 --> 00:25:49.220

당연히 품사의 개념이기 때문에
~사로만 끝내줘야 되는 거고

00:25:49.320 --> 00:25:52.338

어절을 두고 애 문장
성분이 뭐니까?

00:25:52.438 --> 00:25:54.807

이렇게 물어본다면 애네는

~어가 됩니다.

00:25:54.907 --> 00:25:58.667
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주어,
목적어, 서술어 나중에 하겠지만.

00:25:58.767 --> 00:26:02.263
주어, 목적어, 서술어, 보어,
관형어, 부사어, 그리고 독립어.

00:26:02.363 --> 00:26:03.765
이렇게 7가지가 있거든요.

00:26:03.865 --> 00:26:08.226
그러니까 애는 어쨌든 ~어로
끝나줘야 된다는 건데.

00:26:08.326 --> 00:26:11.849
제가 품사 뭐예요?
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?

00:26:11.949 --> 00:26:13.801
~사요,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.

00:26:13.901 --> 00:26:15.848
문장 성분 뭐예요?
이렇게 물어보면,

00:26:15.948 --> 00:26:17.651
~어요, 이렇게 대답하기로 약속.

00:26:17.751 --> 00:26:19.932
그러면 이런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.

00:26:20.032 --> 00:26:25.899
여기에 있는 관형어가
관형사보다 어떤 개념이다?

00:26:25.999 --> 00:26:27.427
큰 개념이에요.

00:26:27.527 --> 00:26:30.237
되게 비슷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.

00:26:30.337 --> 00:26:33.856
그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
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.

00:26:33.956 --> 00:26:38.676
우선 첫 번째, 우리는 이
체언이라는 두 가지.

00:26:38.776 --> 00:26:41.863
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는 점이랑

00:26:41.963 --> 00:26:44.032
그다음에 애네들이 조사랑
결합될 수 있다는

00:26:44.132 --> 00:26:46.391
공통적인 거를 가지고

있다는 거고요.

00:26:46.491 --> 00:26:49.331

그다음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사를 구분지을 텐데.

00:26:49.431 --> 00:26:54.911

명사를 구분짓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

00:26:55.011 --> 00:27:00.801

첫 번째 방식으로는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쪼개준 겁니다.

00:27:00.901 --> 00:27:06.096

그래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를 쪼개줬을 때

00:27:09.465 --> 00:27:13.206

교안에도 잡혀 있죠?

00:27:13.306 --> 00:27:15.680

보통 명사를 곧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

00:27:15.780 --> 00:27:18.019

두루 쓰이는 명사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.

00:27:18.119 --> 00:27:21.283

그다음에 고유 명사는 낱낱의 특정한 사물이나

00:27:21.383 --> 00:27:25.233

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.

00:27:25.333 --> 00:27:28.099

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실상 어떤 것들입니까?

00:27:28.199 --> 00:27:34.363

여기에 나오는 게 인명이나 지명이나 상표명 등 같은 게

00:27:34.463 --> 00:27:37.102

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.

00:27:37.202 --> 00:27:41.300

그래서 보통 명사의 예들을 보게 되면

00:27:41.400 --> 00:27:56.554

나라, 도시, 자동차, 가수 또는 과자.

00:27:56.654 --> 00:28:01.162

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놈들은 전부 다 보통 명사에요.

00:28:01.262 --> 00:28:03.499

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
갔는데, 라고 하면

00:28:03.599 --> 00:28:04.927
구체적인 이름이 아니에요.

00:28:05.027 --> 00:28:10.943
그래서 이것은 여러 지역들을 전부 다
나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.

00:28:11.043 --> 00:28:13.342
그다음에 도지도 여럿
있고 자동차도 여럿 있고

00:28:13.442 --> 00:28:16.590
가수, 나 가수 만났어 하면 한
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

00:28:16.690 --> 00:28:23.048
어떤 여러 사람 중에 누군가를 딱
떠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.

00:28:23.148 --> 00:28:27.170
가수 만났어, 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
사람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.

00:28:27.270 --> 00:28:29.828
나 과자 먹었어, 라고 하면 다양한
과자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

00:28:29.928 --> 00:28:32.881
그래서 보통 명사들은
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

00:28:32.981 --> 00:28:34.468
두루 쓰이는 명사들을 이야기해요.

00:28:34.568 --> 00:28:37.922
그런데 애네들이 고유 명사로
넘어오게 된다면 이런 거겠죠.

00:28:38.022 --> 00:28:42.985
대한민국, 하나밖에 없는 거죠.

00:28:43.085 --> 00:28:47.114
그다음에 도시라고 했을 때 서울.

00:28:47.214 --> 00:28:50.282
역시 애는 고유 명사성을
갖게 되는 겁니다.

00:28:50.382 --> 00:28:55.046
자동차 벤츠, 이런 고유
명사 같은 경우에는

00:28:55.146 --> 00:28:59.515
나라가 바뀌어도 보통 그 이름을 그대로
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

00:28:59.615 --> 00:29:01.487
영어에서는 애네들은 대문자.

00:29:01.587 --> 00:29:03.468
처음에 있는 글자는 처음의 알파벳은

00:29:03.568 --> 00:29:06.354
대문자로 잡아주게 되는 놈들이
바로 고유 명사에 해당하는 거죠.

00:29:06.454 --> 00:29:11.850
또 가수라고 하면 요즘에는
방탄소년단이 장난 아니던데, BTS.

00:29:11.950 --> 00:29:13.925
물론 한글로 써야 되겠죠.

00:29:14.025 --> 00:29:18.602
방탄소년단.

00:29:18.702 --> 00:29:24.383
그다음에 과자 빼빼로,
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

00:29:24.483 --> 00:29:28.239
특정 상표를 이야기해주고 특정
가수를 이야기해주는 거기 때문에

00:29:28.339 --> 00:29:30.034
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.

00:29:30.134 --> 00:29:32.350
그래서 그 특정한 이름을
이야기해주는 거를

00:29:32.450 --> 00:29:34.134
우리는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.

00:29:34.234 --> 00:29:37.805
그러면 제시된 문장을 통해서
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.

00:29:37.905 --> 00:29:40.498
첫 번째 난중일기는
이순신이 쓴 일기이다.

00:29:40.598 --> 00:29:43.784
이 문장에서 명사들이 발견이 되죠?

00:29:43.884 --> 00:29:47.180
그 명사들을 고유 명사,
보통 명사로 구분지어보세요.

00:29:47.280 --> 00:29:53.147
먼저 명사들을 쪼개준다면
난중일기 명사고요.

00:29:53.247 --> 00:29:58.354
이순신 명사가 되겠고,
일기가 명사가 되겠습니다.

00:29:58.454 --> 00:30:02.968
그러면 난중일기는 바로 뭐가 되죠?

00:30:03.068 --> 00:30:05.342
안네의 일기랑 헛갈리지 않죠.

00:30:05.442 --> 00:30:07.369
제가 쓰는 일기랑
헛갈리지 않을 거예요.

00:30:07.469 --> 00:30:10.263
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쓴
고유성을 인정 받아서

00:30:10.363 --> 00:30:12.273
난중일기라는 제목이 딱 붙었어요.

00:30:12.373 --> 00:30:14.856
그러면 애는 바로 고유
명사라고 봐야 되겠죠.

00:30:14.956 --> 00:30:19.501
고유라고 쓸게요.

00:30:19.601 --> 00:30:22.701
이순신, 당연히 고유한
이름이 있는 거죠.

00:30:22.801 --> 00:30:25.984
그래서 그냥 장군이라고 하지
않고 이순신이라고 썼다.

00:30:26.084 --> 00:30:28.596
그다음에 일기는요?

00:30:28.696 --> 00:30:32.231
이거는 여러 대상을 다 통칭해서
표현할 수 있는 말이니까

00:30:32.331 --> 00:30:34.882
애 같은 경우는 보통 명사로
나눌 수가 있겠네요.

00:30:34.982 --> 00:30:37.665
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0:37.765 --> 00:30:42.969
문장 내에서 명사를 끄집어볼게요.

00:30:43.069 --> 00:30:45.433
찾아냈습니까? 볼까요?

00:30:45.533 --> 00:30:49.967
순이, 그다음 방, 그다음에
오빠 이게 명사들이죠.

00:30:50.067 --> 00:30:53.837
먼저 순이, 특정 이름이 딱
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

00:30:53.937 --> 00:30:56.287
그래서 이거 고유.

00:30:56.387 --> 00:31:00.042
방은 보통.

00:31:00.142 --> 00:31:04.041
오빠, 보통이죠.

00:31:04.141 --> 00:31:06.342
정확한 인명이 아닙니다.

00:31:06.442 --> 00:31:14.378
그래서 성별로 따졌을 때는
여자 동생의 윗혈통,

00:31:14.478 --> 00:31:17.033
이렇게 나오면 그게
오빠라고 표현되는 거니까

00:31:17.133 --> 00:31:19.385
그럴 때에는 보통 명사라고
잡아줘야 되겠죠.

00:31:19.485 --> 00:31:24.309
그다음에 다음 문장 볼 텐데 이
문장을 주의 깊게 본다면,

00:31:24.409 --> 00:31:26.280
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.

00:31:26.380 --> 00:31:29.474
미래의 김연아들이 빙판
위에서 연습한다.

00:31:29.574 --> 00:31:32.815
뭐야, 김연아 분신술 썼어?

00:31:32.915 --> 00:31:34.185
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.

00:31:34.285 --> 00:31:36.472
일단 명사들만 도출해낸다면,

00:31:36.572 --> 00:31:38.117
일단 그거부터 하세요.

00:31:38.217 --> 00:31:44.681
이 문장에서 명사
몇 개나 있습니까?

00:31:47.647 --> 00:31:51.579
정답은 4개예요.

00:31:51.679 --> 00:31:56.929
첫 번째, 미래.

00:31:57.029 --> 00:32:02.264
두 번째, 김연아 또는
김연아들까지 잡을 수는 있어요.

00:32:02.364 --> 00:32:04.037
이렇게 잡아도 됩니다.

00:32:04.137 --> 00:32:05.528
김연아들까지 갈게요.

00:32:05.628 --> 00:32:09.149
왜냐하면 들이라는 거는
단어의 기능이 아니라

00:32:09.249 --> 00:32:12.616
그냥 앞에 있는 거에 찰싹 찰싹 붙어질
수밖에 없는 놈이어서 김연아들.

00:32:12.716 --> 00:32:14.158
나중에 보게 됩니다.

00:32:14.258 --> 00:32:15.991
그다음 빙판 좋아요.

00:32:16.091 --> 00:32:19.370
그다음 위, 좋습니다, 끝.

00:32:19.470 --> 00:32:22.701
여기서 잠깐, 이거
먼저 해결해볼까요?

00:32:22.801 --> 00:32:27.771
연습한다, 왜 안 해줘요?
연습 명사잖아요.

00:32:27.871 --> 00:32:31.957
연습 과연 명사일까요? 봅시다.

00:32:32.057 --> 00:32:36.290
여러분, 이런 단어가 있어요.

00:32:36.390 --> 00:32:40.965
첫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

00:32:41.065 --> 00:32:50.341
이거 품사 뭘까요?
애는 명사입니다.

00:32:50.441 --> 00:32:56.696
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의
재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

00:32:56.796 --> 00:33:00.299
애는 지금 재료가 2개인데
어떻게 합쳐졌습니까?

00:33:00.399 --> 00:33:03.843
첫하고 눈하고 합쳐진 단어인
거를 알 수 있습니다.

00:33:03.943 --> 00:33:05.887
눈은 명사인 거 맞거든요.

00:33:05.987 --> 00:33:08.841
애는 또 사전에 찾으려면
명사라고 나오는 놈인데

00:33:08.941 --> 00:33:12.884

첫은 폼사가 명사는 아니거든요.
애는 뭘까요?

00:33:12.984 --> 00:33:15.566
예를 들면 첫 월급을 받았어.

00:33:15.666 --> 00:33:18.301
여기가 나의 첫 학교야,
이렇게 표현했을 때

00:33:18.401 --> 00:33:19.992
붙여서 씩니까, 떨어져 씩니까?

00:33:20.092 --> 00:33:21.296
떨어 써야 되겠죠.

00:33:21.396 --> 00:33:26.294
그러니까 여기에 보면
첫 월급, 첫 직장

00:33:26.394 --> 00:33:28.639
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
떨어 써야 되거든요.

00:33:28.739 --> 00:33:32.876
떨어 쓰면서 명사를 꾸며주는
폼사는 뭐라고 한다?

00:33:32.976 --> 00:33:33.944
관형사.

00:33:34.044 --> 00:33:37.162
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
놈들을 관형사라고 해요.

00:33:37.262 --> 00:33:38.683
형태가 고정되어있는 관형사.

00:33:38.783 --> 00:33:41.190
그러면 애가 지금 관형사예요.

00:33:41.290 --> 00:33:42.831
그러면 여러분, 다시 물어볼게요.

00:33:42.931 --> 00:33:45.934
첫눈에 폼사가 뭘니까? 이렇게
물어보면 관형사 명사요.

00:33:46.034 --> 00:33:49.718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? 아니면
그냥 명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?

00:33:49.818 --> 00:33:52.182
명사요,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.

00:33:52.282 --> 00:33:57.112
왜? 이미 이렇게 재료들은
원래 관형사, 명사였지만

00:33:57.212 --> 00:34:01.446
합쳐져서 사전에 등재되어있으니까

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.

00:34:01.546 --> 00:34:04.257
애는 띄어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

00:34:04.357 --> 00:34:07.060
하나의 완전한 단어로
구축이 되지 않고

00:34:07.160 --> 00:34:09.261
아직 두 단어라고 보는 거예요.

00:34:09.361 --> 00:34:13.485
그래서 첫 관형사, 월급이나
직장은 명사에서 찢어줘야 되지만

00:34:13.585 --> 00:34:16.659
이런 단어 같은 경우 한
단어로 착 잡아주면 됩니다.

00:34:16.759 --> 00:34:21.105
그러면 이 원리를 적용했을
때 이렇게 잡아보면 돼요.

00:34:21.205 --> 00:34:26.989
만약에 연습을 한다,
이렇게 나오는 거랑

00:34:27.089 --> 00:34:30.913
연습한다, 이거랑은
너무 차이가 납니다.

00:34:31.013 --> 00:34:33.361
ㄴ다로 안 쓰고 그냥
하다로 가볼게요.

00:34:33.461 --> 00:34:39.138
연습을 하다와 연습하다, 이
단어는 구성이 좀 달라요.

00:34:39.238 --> 00:34:41.601
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.

00:34:41.701 --> 00:34:45.659
연습을 하다에는 품사가 3개, 단어가
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.

00:34:45.759 --> 00:34:49.991
먼저 연습이라는 명사에

00:34:50.091 --> 00:34:53.572
을이라는 목적격 조사입니다.

00:34:53.672 --> 00:34:56.315
그래서 애가 목적어가 된 거예요.

00:34:56.415 --> 00:35:00.147
그리고 하다, 라는 단어는
사전에 찾으려면 나오는데

00:35:00.247 --> 00:35:06.114

뭐라고 나오는 겁니까?
동사라고 잡히는 놈이죠.

00:35:06.214 --> 00:35:10.661

그런데 밑에는 연습하다,
라는 단어를 찾으면

00:35:10.761 --> 00:35:12.078

이대로 사전에 등재가 되어있는 거.

00:35:12.178 --> 00:35:15.917

그래서 애가 동사인데.

00:35:16.017 --> 00:35:22.004

물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
연습이 여기서 내려온 연습 맞죠.

00:35:22.104 --> 00:35:23.467

같은 단어입니다.

00:35:23.567 --> 00:35:25.974

그런데 말이에요.

00:35:26.074 --> 00:35:30.366

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다,
라는 놈이 동사가 아니에요.

00:35:30.466 --> 00:35:32.039

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

00:35:32.139 --> 00:35:35.249

그래서 애는 똑같은 모양이지만

00:35:35.349 --> 00:35:38.851

애를 특정한 단어는
아니고 품사는 아니고

00:35:38.951 --> 00:35:44.372

어떠한 일정한 단어 뒤에서 의미를
제한하거나 더해주거나 하면서

00:35:44.472 --> 00:35:47.800

단어를 더 만들어줄 수 있는
접미사라는 놈이 있습니다.

00:35:47.900 --> 00:35:49.765

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개념인데

00:35:49.865 --> 00:35:53.955

이렇게 더해져서 하나의 새로운
단어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.

00:35:54.055 --> 00:35:57.052

따라서 재료는 명사였을지 모르지만

00:35:57.152 --> 00:35:59.586

이미 굳어져서 띄어
쓰지 않는 단어는

00:35:59.686 --> 00:36:01.692

새로운 단어라고 이야기를

해줘야 됩니다.

00:36:01.792 --> 00:36:05.806

그러니까 여기서 연습 잡아서
이거 명사요, 이러면 안 돼요.

00:36:05.906 --> 00:36:06.882

알겠죠?

00:36:06.982 --> 00:36:09.621

그러면 위에 것도 또 의심이 되죠.

00:36:09.721 --> 00:36:12.057

그런데 왜 이거는 또
찢어서 이야기합니까?

00:36:12.157 --> 00:36:13.886

명사라고 잡아주셨잖아요.

00:36:13.986 --> 00:36:15.287

애는 좀 다르죠.

00:36:15.387 --> 00:36:17.574

이다는 뒤에 해당하는 거였죠?

00:36:17.674 --> 00:36:19.942

바로 조사.

00:36:20.042 --> 00:36:22.736

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
서술격 조사니까

00:36:22.836 --> 00:36:25.701

무조건 품사에서 조사는
찢어낼 수가 있잖아요.

00:36:25.801 --> 00:36:29.179

접미사는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
찢는 놈이 아니에요.

00:36:29.279 --> 00:36:32.347

우리가 품사를 나눌 때는
접미사를 찢을 수 없다는 점,

00:36:32.447 --> 00:36:34.059

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36:34.159 --> 00:36:36.019

지금 좀 헛갈릴 수
있어요, 정리를 할게요.

00:36:36.119 --> 00:36:38.955

지금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?

00:36:39.055 --> 00:36:41.482

우리가 나중에 이 개념을
배워야 되는 내용이니까

00:36:41.582 --> 00:36:43.466

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.

00:36:43.566 --> 00:36:51.132
A를 하다, A하다.

00:36:51.232 --> 00:36:53.918
이 구조는 서로 같지 않은
거라고 보면 되겠고.

00:36:54.018 --> 00:37:00.767
A를 하다, 여기서 A는 명사로
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37:00.867 --> 00:37:04.107
그리고 A하다, 이거 같은 경우에는

00:37:04.207 --> 00:37:10.888
이거 전체가 동사 또는 형용사로
잡히게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.

00:37:10.988 --> 00:37:13.927
그러면 지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

00:37:14.027 --> 00:37:18.778
A하다 형태는 일단 명사는 들어가있지
않은 놈이라고 보면 됩니다.

00:37:18.878 --> 00:37:24.162
그냥 이거는 동사 아니면
형용사로 보면 돼요.

00:37:24.262 --> 00:37:28.386
공부하다.

00:37:28.486 --> 00:37:31.914
착하다.

00:37:32.014 --> 00:37:35.569
성실하다.

00:37:35.669 --> 00:37:44.026
심지어는 스마트하다.

00:37:44.126 --> 00:37:45.723
섹시하다.

00:37:45.823 --> 00:37:47.796
선생님, 이렇게 막
이야기해도 돼요?

00:37:47.896 --> 00:37:49.530
이런 거 정말 사전에 있어요?

00:37:49.630 --> 00:37:50.871
네, 있습니다.

00:37:50.971 --> 00:37:54.590
여러분, 지금 이 A하다
형태로 되어있는 단어가

00:37:54.690 --> 00:38:03.303
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무려
15000개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.

00:38:03.403 --> 00:38:05.549
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

00:38:05.649 --> 00:38:07.692
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
찾을 수가 없는 건데.

00:38:07.792 --> 00:38:10.431
그만큼 이런 모든 단어들은
동사 아니면 형용사거든요.

00:38:10.531 --> 00:38:11.750
공부하다, 동사.

00:38:11.850 --> 00:38:12.759
착하다, 형용사.

00:38:12.859 --> 00:38:13.940
성실하다, 형용사.

00:38:14.040 --> 00:38:15.126
스마트하다, 형용사.

00:38:15.226 --> 00:38:15.974
섹시하다, 형용사.

00:38:16.074 --> 00:38:17.922
이렇게 해서 동사,
형용사 구분하는 거는

00:38:18.022 --> 00:38:19.454
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,

00:38:19.554 --> 00:38:22.819
이렇게 애네들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
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해야 된다?

00:38:22.919 --> 00:38:24.703
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.

00:38:24.803 --> 00:38:26.116
이거 딱 끄집어서 공부, 명사요.

00:38:26.216 --> 00:38:27.749
성실, 명사요, 이렇게
하면 안 되는 거예요.

00:38:27.849 --> 00:38:31.903
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품사는,

00:38:32.003 --> 00:38:33.563
연습은 명사 아니라는 거.

00:38:33.663 --> 00:38:35.311
명사는 딱 여기 4개인데.

00:38:35.411 --> 00:38:37.574
이제 고유하고 보통 다시
잡아보도록 할게요.

00:38:37.674 --> 00:38:42.849

미래는 보통.

00:38:42.949 --> 00:38:45.398

그다음 빙판 보통.

00:38:45.498 --> 00:38:46.988

위도 보통이죠.

00:38:47.088 --> 00:38:48.377

위를 봐, 아래를 봐.

00:38:48.477 --> 00:38:52.426

위, 아래 당연히 보통 명사입니다.

00:38:52.526 --> 00:38:58.671

김연아들인데, 김연아는
고유예요, 보통이에요?

00:38:58.771 --> 00:39:00.489

사람 이름이니까 고유 명사죠.

00:39:00.589 --> 00:39:04.472

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
김연아의 분신술이 아니에요.

00:39:04.572 --> 00:39:10.904

김연아처럼 앞으로 훌륭한 피겨스케이트
선수가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.

00:39:11.004 --> 00:39:13.576

유망주들을 이야기하는
그런 표현으로 썼습니다.

00:39:13.676 --> 00:39:16.452

이럴 때 뭐라고 하나면,

00:39:16.552 --> 00:39:26.974

고유 명사의 보통 명사화가
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.

00:39:27.074 --> 00:39:30.953

국립국어원 표준 국어
대사전에 보게 되면

00:39:31.053 --> 00:39:33.462

이 고유 명사에 대한 설명
하면서 자세하게 풀어놨는데

00:39:33.562 --> 00:39:35.398

거기서 홍길동을 예를 들거든요.

00:39:35.498 --> 00:39:38.296

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것은
소설 속 인물로 이야기하면

00:39:38.396 --> 00:39:39.609

당연히 고유 명사이지만

00:39:39.709 --> 00:39:44.809

만약에 이 홍길동이 신기한 도술을

부릴 수 있는 존재의 개념으로 썼다면

00:39:44.909 --> 00:39:48.585

그것을 보통 명사처럼 쓴
것이라는 이야기죠.

00:39:48.685 --> 00:39:53.916

예를 들면 저 사람은 홍길동이야,
이렇게 표현한 거예요.

00:39:54.016 --> 00:39:57.470

완전 홍길동이야, 동해
번쩍 서해 번쩍해.

00:39:57.570 --> 00:39:59.986

그렇다면 진짜 소설
속에 홍길동이다.

00:40:00.086 --> 00:40:01.787

그 사람이 홍길동일 수는 없잖아요.

00:40:01.887 --> 00:40:03.740

그런데 홍길동과 같은 사람.

00:40:03.840 --> 00:40:07.908

즉 신통력 있는 사람, 뭔가 신비한
사람이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.

00:40:08.008 --> 00:40:11.189

그럴 때 보통 명사처럼 쓴
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.

00:40:11.289 --> 00:40:14.335

그래서 마지막 예문도
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

00:40:14.435 --> 00:40:17.158

사실 뽀뽀로데이는 사전에
등재돼있지는 않은데

00:40:17.258 --> 00:40:19.307

애가 지금 이렇게 되면 돼요.

00:40:19.407 --> 00:40:22.562

우선 명사들을 끄집어내면
이렇게 됩니다.

00:40:22.662 --> 00:40:28.307

뽀뽀로데이, 옆, 친구, 뽀뽀로
이렇게 명사들 잡혀 있죠.

00:40:28.407 --> 00:40:35.200

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뽀뽀로
같은 경우에는 고유 명사입니다.

00:40:40.627 --> 00:40:44.575

롯데 뽀뽀로, 선생님은 별로
좋아하는 과자는 아닌데

00:40:44.675 --> 00:40:46.081

아무튼 롯데 뽀뽀로잖아요.

00:40:46.181 --> 00:40:48.755
그거를 다른 업체에서 빼빼로라는
거를 쓸 수 없어요.

00:40:48.855 --> 00:40:53.232
그런 점에서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
예전에는 고유 명사였거든요.

00:40:53.332 --> 00:40:55.699
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만
나왔기 때문에.

00:40:55.799 --> 00:40:57.241
그런데 지금 고유 명사 아니에요.

00:40:57.341 --> 00:41:00.459
그래서 롯데 초코파이, 다른 데
해태 초코파이 다 나왔잖아요.

00:41:00.559 --> 00:41:03.136
그래서 상표권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

00:41:03.236 --> 00:41:05.631
그 기간이 끝나면 고유
명사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

00:41:05.731 --> 00:41:10.281
그래서 초코를 위에 바른, 이렇게
코팅한 그런 파이라는 이름의

00:41:10.381 --> 00:41:12.180
보통 명사로 쓰인 겁니다.

00:41:12.280 --> 00:41:16.109
그런데 오리온에서는 초코파이는
고유성을 잃어버렸으니까

00:41:16.209 --> 00:41:20.109
초코파이 정, 이렇게 붙여서 다시
고유 명사로 채택을 한 거죠.

00:41:20.209 --> 00:41:23.552
그렇게는 쓸 수 있는데 빼빼로를
아직까지는 다른 데서는 못 써요.

00:41:23.652 --> 00:41:25.657
그러니까 확실하게
고유 명사 맞아요.

00:41:25.757 --> 00:41:30.313
이런 거는 보통 명사죠.

00:41:30.413 --> 00:41:33.905
옆이나 친구나 이런 거는
전부 다 보통 명사인데

00:41:34.005 --> 00:41:38.254
지금 가만히 보니까
빼빼로테이가 밸런타인테이나,

00:41:38.354 --> 00:41:40.645

발렌타인데이 아니에요,
표기는 밸런타인데이.

00:41:40.745 --> 00:41:44.183

아니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
고유성이잖아요, 고유 명사가 되죠.

00:41:44.283 --> 00:41:48.627

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,
명절들, 축제의 날들이 있는데

00:41:48.727 --> 00:41:51.573

그중에서 구분짓기 위한
특정한 이름이 있으니까

00:41:51.673 --> 00:41:52.923

개네들은 고유 명사.

00:41:53.023 --> 00:41:54.701

그러면 뽀뽀로데이도
뭐가 되는 거죠.

00:41:54.801 --> 00:41:57.335

애도 역시 고유 명사라고
볼 수 있습니다.

00:41:57.435 --> 00:42:02.981

그런데 만약에 지금 단어를 이렇게
하나처럼 붙여서 썼잖아요.

00:42:03.081 --> 00:42:05.549

어차피 등재되어있는 단어는 아닌데.

00:42:05.649 --> 00:42:09.710

선생님이 만약에 뽀뽀로
그리고 데이,

00:42:09.810 --> 00:42:12.493

이렇게 찢었어요,
단어를 쪼갠 거예요.

00:42:12.593 --> 00:42:14.808

그러면 이때 뽀뽀로는 품사가 뭘까?

00:42:14.908 --> 00:42:20.022

당연히 명사인데 이때는 고유 명사의
보통 명사화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.

00:42:20.122 --> 00:42:25.070

왜냐하면 뽀뽀로 데이라고 해서 꼭
뽀뽀로를 선물받는 거는 아니잖아요.

00:42:25.170 --> 00:42:27.434

그러니까 가늘고 길고
초코우유를 둘러싼

00:42:27.534 --> 00:42:29.561

그런 과자라는 의미에서
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42:29.661 --> 00:42:33.217

그래서 만약에 여자친구가
바게트빵에다가 초코를 발라서

00:42:33.317 --> 00:42:35.044

이거 받으라고 했는데
막 화를 내면서

00:42:35.144 --> 00:42:38.058

너 어떻게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선물
안 하고 이런 거를 선물하는 거니?

00:42:38.158 --> 00:42:40.489

정말 나를 뭐로 아는 거야?
이러면 이상하잖아요.

00:42:40.589 --> 00:42:42.944

그러니까 빼빼로데이에서의
빼빼로의 의미는

00:42:43.044 --> 00:42:45.865

정말 롯데 빼빼로를
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니까

00:42:45.965 --> 00:42:49.237

고유 명사를 이미 보통
명사화해서 썼다는 거죠.

00:42:49.337 --> 00:42:51.996

그래서 이런 예도 하나
더 설명을 드렸습니다.

00:42:52.096 --> 00:42:54.368

이렇게 해서 명사를 나누는 기준으로

00:42:54.468 --> 00:42:59.831

첫 번째는 보통 명사, 고유
명사 구분하는 거 알겠죠?

00:42:59.931 --> 00:43:02.266

다음.

00:43:02.366 --> 00:43:09.760

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의
구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

00:43:09.860 --> 00:43:20.821

두 번째,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.

00:43:20.921 --> 00:43:22.708

이놈이 정말 중요해.

00:43:22.808 --> 00:43:26.367

이놈이 명사 쪽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
문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

00:43:26.467 --> 00:43:27.755

이렇게 됩니다.

00:43:27.855 --> 00:43:32.249

자립 명사라는 것은 아까 전에

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체언 자체가

00:43:32.349 --> 00:43:36.503
앞에 있는 관형어에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를 했었는데요.

00:43:36.603 --> 00:43:54.079
이 자립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 없이 쓸 수 있는 명사예요.

00:43:54.179 --> 00:44:01.264
관형어의 수식 없이 쓸 수 있는 명사를 자립 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44:01.364 --> 00:44:03.319
예를 들어 볼게요.

00:44:03.419 --> 00:44:12.295
그는 멋진 차를 샀다.

00:44:15.470 --> 00:44:17.935
이런 문장을 한번 예를 들면 보면,

00:44:18.035 --> 00:44:20.102
여기서 지금 그는 멋진 차를 샀다.

00:44:20.202 --> 00:44:22.236
여기서 차는 당연히 명사입니다.

00:44:22.336 --> 00:44:25.903
그런데 이 차가 자립적인 명사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

00:44:26.003 --> 00:44:28.323
앞에 뭐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?

00:44:28.423 --> 00:44:32.203
멋진이라는 관형어가 없어도 되니까.

00:44:32.303 --> 00:44:34.431
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.

00:44:34.531 --> 00:44:36.846
그러니까 그는 차를 샀다,
이게 가능하다는 거죠.

00:44:36.946 --> 00:44:41.664
이게 지금 관형어라는 건데,
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.

00:44:41.764 --> 00:44:45.143
이거 주목.

00:44:45.243 --> 00:44:50.643
바로 옆에서 설명드렸던 관형사와
관형어의 관계를 지금 설명드릴게요.

00:44:50.743 --> 00:44:59.015
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어절인 하나의
띄어쓰기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44:59.115 --> 00:45:03.040

그래서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문장 성분.

00:45:11.887 --> 00:45:13.367

이해되셨죠?

00:45:13.467 --> 00:45:16.884

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45:16.984 --> 00:45:21.610

사람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.

00:45:21.710 --> 00:45:25.680

첫 번째, 새 사람이 되었다.

00:45:25.780 --> 00:45:27.541

꾸밈 받는 거 맞아요?
붙여 쓰지 않죠.

00:45:27.641 --> 00:45:30.434

새 사람이 되었다.

00:45:30.534 --> 00:45:34.131

아니, 새 사람은 단어가
구축이 됐겠구나.

00:45:34.231 --> 00:45:39.195

애는 아예 단어가 형성이 됐겠어요.

00:45:39.295 --> 00:45:44.980

그러면 이거는 새 빵을 구웠다,
이렇게 가도록 할게요.

00:45:45.080 --> 00:45:47.976

새 사람은 아예 단어가
형성이 된 단어였기 때문에

00:45:48.076 --> 00:45:49.598

이거 다른 거로 바꿀게요.

00:45:49.698 --> 00:45:53.208

새 빵을 만들었다,
새 빵을 구웠다 이렇게 갔으니까

00:45:53.308 --> 00:45:54.999

이거 떼어 쓸 수 있다는 거죠.

00:45:55.099 --> 00:46:02.702

그다음 두 번째, 맛있는 빵.

00:46:02.802 --> 00:46:06.566

이런 구성도 가능하겠고요.

00:46:06.666 --> 00:46:13.562

그다음 형의 빵,
이렇게도 가능하죠.

00:46:13.662 --> 00:46:16.035

지금 다 구조가 꾸미는 구조 맞죠.

00:46:16.135 --> 00:46:19.116

띄어 써야 되고 꾸며주는
구조 맞습니다.

00:46:19.216 --> 00:46:24.962

그다음 빵 만드는 상표 중에서 사니도
있고 삼립도 있지 않습니까?

00:46:25.062 --> 00:46:30.291

그래서 저는 삼립, 이런
상표들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.

00:46:30.391 --> 00:46:32.651

이렇게 삼립 빵,
이렇게 만들어봤어요.

00:46:32.751 --> 00:46:33.864

어때요?

00:46:33.964 --> 00:46:37.625

애네들이 전부 다 띄어 써서
꾸며주는 구조이기는 한데

00:46:37.725 --> 00:46:39.914

애네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불러준다?

00:46:40.014 --> 00:46:42.860

관형어라고 불러주면 돼요,
꾸며주기만 하면.

00:46:42.960 --> 00:46:47.670

그러나 품사로는 다
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

00:46:47.770 --> 00:46:51.383

먼저 새는 품사로 따지게 되면

00:46:51.483 --> 00:46:55.980

애는 사전에 그대로 등재가
되어있는 관형사예요.

00:46:56.080 --> 00:46:59.759

따라서 관형어가 될 수
있는 첫 번째 조건은

00:46:59.859 --> 00:47:02.223

관형사이면 관형어가 됩니다.

00:47:02.323 --> 00:47:05.014

다음 두 번째, 물어볼게요.

00:47:05.114 --> 00:47:08.221

맛있는, 사전에서 찾으려면
찾을 수 있다, 없다?

00:47:08.321 --> 00:47:11.762

사전에 맛있는, 이렇게 쳐보면
찾을 수 있다, 없다?

00:47:11.862 --> 00:47:14.138

외국인이 옆에 와서
맛있는 안 나와,

00:47:14.238 --> 00:47:17.177
맛있는 빵인데 빵은 사전 나오는데
맛있는은 안 나와요, 어떻게 하죠?

00:47:17.277 --> 00:47:18.982
이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?

00:47:19.082 --> 00:47:21.816
맛있는을 찾으려면 어떻게
해, 맛있다는 찾아야지.

00:47:21.916 --> 00:47:23.356
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?

00:47:23.456 --> 00:47:26.498
그러면 이 단어의 원형은
바로 맛있다는데

00:47:26.598 --> 00:47:31.599
그러면 이 맛있다는
아까 이야기했죠?

00:47:31.699 --> 00:47:34.417
동사, 형용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.

00:47:34.517 --> 00:47:37.151
용언이에요. 왜?

00:47:37.251 --> 00:47:40.936
맛있+다로 쪼갤 수가 있는 것이고

00:47:41.036 --> 00:47:46.938
이때의 다는 어미이고 맛있이
어간이 되는 거죠.

00:47:47.038 --> 00:47:49.302
기본형에서 다만 빼면
어간 나오는 거예요.

00:47:49.402 --> 00:47:53.382
그래서 이 맛있, 여기 어간에
다 대신에 뭐를 넣어줬죠?

00:47:53.482 --> 00:47:57.577
는이라는 거를 넣어줬을 때 이게
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

00:47:57.677 --> 00:48:03.361
그래서 맛있는 빵, 맛있을
빵, 맛있던 빵과 같이

00:48:03.461 --> 00:48:11.331
은, 는, 던, 을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
되면 애가 꾸미는 구조가 됩니다.

00:48:11.431 --> 00:48:14.973
이 구조를 뭐라고 할 수
있냐면, 두 번째 구조.

00:48:15.073 --> 00:48:17.166
이거 나중에 한 번 더해요.

00:48:17.266 --> 00:48:21.172
지금은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기
위해서 끌어와야 되는 개념입니다.

00:48:21.272 --> 00:48:24.320
용언, 맞았다는 형용사거든요.

00:48:24.420 --> 00:48:30.425
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,
즉 맛있까지가 어간이죠.

00:48:30.525 --> 00:48:33.049
더하기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.

00:48:33.149 --> 00:48:40.252
관형사형 전성 어미,
지금 몰라도 좋아요.

00:48:40.352 --> 00:48:43.145
이 이름에 대해서는 놓쳐도
좋으니까 적어만 놓고.

00:48:43.245 --> 00:48:45.299
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
뭐인 거예요?

00:48:45.399 --> 00:48:47.764
여기에 있는 눈이 해당하는 겁니다.

00:48:47.864 --> 00:48:48.842
됐죠?

00:48:48.942 --> 00:48:51.280
그다음에 세 번째.

00:48:51.380 --> 00:48:54.575
형과 의는 역시 쪼갤
수 있을 거예요.

00:48:54.675 --> 00:48:59.152
형은 명사가 되겠고 의가 뭐냐?
조사죠.

00:48:59.252 --> 00:49:01.335
체언 뒤에 바로 붙이는 조사인데

00:49:01.435 --> 00:49:04.153
저 조사가 있기 때문에
꾸밀 수 있어요.

00:49:04.253 --> 00:49:08.459
형을 빵, 형이 빵, 형에게
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

00:49:08.559 --> 00:49:12.832
꾸며주는 구성으로는 형의,
이게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.

00:49:12.932 --> 00:49:21.589

그래서 이거는 형과 같은
체언에 용어, 관형격 조사.

00:49:24.886 --> 00:49:27.709

관형격 조사가 의입니다.

00:49:27.809 --> 00:49:29.231

이거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볼까요?

00:49:29.331 --> 00:49:33.630

이거를 더해줌으로 관형어가
될 수 있는 거예요.

00:49:33.730 --> 00:49:36.038

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,

00:49:36.138 --> 00:49:39.153

일부의 경우에는 이렇게
의를 굳이 넣지 않아도

00:49:39.253 --> 00:49:41.611

삼립의 빵, 이렇게 하는 게
오히려 어색할 때가 있어요.

00:49:41.711 --> 00:49:44.553

그래서 그냥 단독으로
명사, 체언 단독인데

00:49:44.653 --> 00:49:53.590

체언 단독으로 이렇게 명사를 또
꾸밀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.

00:49:53.690 --> 00:49:56.468

그러나 이것도 역시
삼립 빵의 구조니까

00:49:56.568 --> 00:49:59.421

이러한 형태가 되면 관형어가
될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49:59.521 --> 00:50:00.583

이해 되셨나요?

00:50:00.683 --> 00:50:02.569

그러면 비슷하게 한번
예를 들어볼게요.

00:50:02.669 --> 00:50:05.014

집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.

00:50:05.114 --> 00:50:09.553

첫 번째, 새 집도 물론 있지만 새
집 말고 같은 구조로 만들어볼게요.

00:50:09.653 --> 00:50:13.364

관형사의 양이 많지 않거든요.

00:50:13.464 --> 00:50:15.295

그러니까 금방 안 나올 수 있어요.

00:50:15.395 --> 00:50:16.839

옛 집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

00:50:16.939 --> 00:50:19.422

옛은 사전 찾으면 그대로

나오는 단어이고

00:50:19.522 --> 00:50:24.141

옛은 바로 뒤에 뭐를 붙이는 게

아니라 띄어서 꾸며주는 놈 맞죠.

00:50:24.241 --> 00:50:25.834

그래서 옛 띄고 집.

00:50:25.934 --> 00:50:28.120

그러면 애는 관형사고

관형어가 됩니다.

00:50:28.220 --> 00:50:29.696

두 번째 가볼까요?

00:50:29.796 --> 00:50:31.980

이거 여러분이 하나씩

예문 만들어보겠어요?

00:50:32.080 --> 00:50:35.646

어떤 집? 활용을 해야 돼요.

00:50:35.746 --> 00:50:38.680

뭐 있을까요?

00:50:38.780 --> 00:50:41.630

선생님은 이것을 잡아보겠습니다.

00:50:41.730 --> 00:50:43.866

멋진 집, 정말 멋진 집이야.

00:50:43.966 --> 00:50:46.044

여기서 그러면 구분.

00:50:46.144 --> 00:50:49.561

용언의 어간하고 관형사형

전성 어미가 나뉘어져야 되는데

00:50:49.661 --> 00:50:51.237

어디에서 끊어질까요?

00:50:51.337 --> 00:50:54.932

여러분, 이 멋진이라는 단어를

사전에서 찾으면 뭐 찾아야 돼요?

00:50:55.032 --> 00:50:56.336

멋지다, 찾아야겠죠.

00:50:56.436 --> 00:51:00.475

그러면 다를 제외한 어디까지가

어간이라는 겁니까?

00:51:00.575 --> 00:51:03.606

멋지까지가 어간.

00:51:03.706 --> 00:51:07.247

그러면 여기서 이 는이
관형사형 전성 어미니까

00:51:07.347 --> 00:51:10.299

여기서는 뭐가? 는이
관형사형 전성 어미일 거예요.

00:51:10.399 --> 00:51:11.576

이해되셨죠?

00:51:11.676 --> 00:51:13.830

그래서 사전에서 멋진
찾으면 안 나와요.

00:51:13.930 --> 00:51:15.003

맛있는 찾으면 안 나옵니다.

00:51:15.103 --> 00:51:17.690

기본형에서 변화를 준
거예요, 이런 구조.

00:51:17.790 --> 00:51:21.270

세 번째, 의 붙이면 되는 거니까.

00:51:21.370 --> 00:51:27.437

그래서 부모님의 집,
이렇게 될 수 있겠죠.

00:51:27.537 --> 00:51:29.979

세 번째, 우리 고향 집.

00:51:30.079 --> 00:51:34.014

고향 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는
아니니까 띄어 써야 되거든요.

00:51:34.114 --> 00:51:36.528

우리 고향 집에 갔어,
이렇게 이야기할 때는

00:51:36.628 --> 00:51:38.121

고향의 집의 느낌이잖아요.

00:51:38.221 --> 00:51:41.010

그래서 체언 단독으로 꾸며주는
구성으로 만들어봤어요.

00:51:41.110 --> 00:51:42.360

이런 형태예요.

00:51:42.460 --> 00:51:44.066

대충 감이 옵니까?

00:51:44.166 --> 00:51:46.855

그러면 다시.

00:51:46.955 --> 00:51:50.155

관형사는 관형어 안에 포함되어있는
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.

00:51:50.255 --> 00:51:55.601
그다음에 관형어라는 것은 꼭 관형사가
아니어도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.

00:51:55.701 --> 00:51:59.465
그래서 동사, 형용사에서
활용이 될 수도 있고

00:51:59.565 --> 00:52:01.615
관형격 조사 붙여도
관형어 될 수 있다.

00:52:01.715 --> 00:52:04.195
이 틀 나중에 문장 성분할
때 또 해야 되지만

00:52:04.295 --> 00:52:07.232
지금 의존 명사 설명할
때 반드시 필요합니다.

00:52:07.332 --> 00:52:09.912
그러면 돌아가볼게요.

00:52:10.012 --> 00:52:12.960
지금 이 자립 명사의 예로
그는 멋진 차를 샀다.

00:52:13.060 --> 00:52:16.873
이 멋진이 바로 관형어가
되는 거잖아요.

00:52:16.973 --> 00:52:24.113
그런데 이 관형어가 없어도
문장에 문제가 없어요.

00:52:24.213 --> 00:52:26.824
이렇게 해도 상관이
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2:26.924 --> 00:52:32.802
그런데 의존 명사는 이렇게
정의를 내리면 돼요.

00:52:32.902 --> 00:52:44.327
관형어의 수식에 반드시
기대야 하는 명사다.

00:52:44.427 --> 00:52:46.132
이렇게 보면 됩니다.

00:52:46.232 --> 00:52:48.500
반드시 기대서 써야만
한다는 거예요.

00:52:48.600 --> 00:52:50.348
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.

00:52:50.448 --> 00:52:57.082
그는 멋진 것을 샀다.

00:52:57.182 --> 00:53:01.820

이럴 때 아까 멋진 차를 샀다에서는
멋진을 제거했거든요, 관형어를.

00:53:01.920 --> 00:53:03.505
애도 한번 제거해볼게요.

00:53:03.605 --> 00:53:05.194
그는 것을 샀다.

00:53:05.294 --> 00:53:07.873
이상하잖아요.
이게 무슨 소리야?

00:53:07.973 --> 00:53:12.026
그러면 이 것과 차는 사실 같아요.

00:53:12.126 --> 00:53:15.321
앞에 보니까 관형어의
수식을 받은 상황이었고

00:53:15.421 --> 00:53:18.176
뒤에 조사랑도 결합될 수 있으니까

00:53:18.276 --> 00:53:20.499
체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

00:53:20.599 --> 00:53:23.542
위에랑 아래의 차이가
있다면 생략했을 때

00:53:23.642 --> 00:53:27.614
애는 생략이 가능하지만

00:53:27.714 --> 00:53:30.911
관형어 생략이 가능하죠.

00:53:31.011 --> 00:53:34.504
그런데 애는 관형어 생략이
안 된다는 거예요.

00:53:34.604 --> 00:53:36.855
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

00:53:36.955 --> 00:53:39.381
재빨리 의존 명사인
거를 알기 위해서는

00:53:39.481 --> 00:53:42.387
문장 첫머리로 옮겨버리는
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00:53:42.487 --> 00:53:44.966
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훈련해볼게요.

00:53:45.066 --> 00:53:49.144
여기서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를
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53:49.244 --> 00:53:52.367
우선 명사들만 다
도출해보도록 하겠어요.

00:53:52.467 --> 00:53:56.185
첫 번째 문장.

00:53:56.285 --> 00:53:59.158
먼저 것과 바다를
잡아주면 되겠습니다.

00:53:59.258 --> 00:54:02.361
저기는 대명사예요, 지시 대명사.

00:54:02.461 --> 00:54:03.850
결, 명사

00:54:03.950 --> 00:54:05.099
바다도 명사인테.

00:54:05.199 --> 00:54:08.418
여기서 이는 조사.

00:54:08.518 --> 00:54:10.655
입니까? 이것도 조사예요.

00:54:10.755 --> 00:54:13.015
선생님, 이다가 조사라면서요?

00:54:13.115 --> 00:54:16.947
보세요.

00:54:17.047 --> 00:54:18.970
똑같다니까요.

00:54:19.070 --> 00:54:22.371
갑니까 사전 찾으면
뭐 찾아야 돼요?

00:54:22.471 --> 00:54:24.376
집에 갑니까를 사전 찾으면
뭐 찾아야 되죠?

00:54:24.476 --> 00:54:26.727
가다를 찾아야 되죠.

00:54:26.827 --> 00:54:30.509
그러면 애는 다 대신에
뭐를 붙인 겁니까?

00:54:30.609 --> 00:54:34.791
비니까를 붙여서 나온 거죠.
맞습니까?

00:54:34.891 --> 00:54:38.588
다시.

00:54:38.688 --> 00:54:44.171
갑니까, 이 부분을 쪼개본다면
가다 할 때의 어간인 가에

00:54:44.271 --> 00:54:47.506
더하기 비니까를 더한 거잖아요.

00:54:47.606 --> 00:54:51.381

그러면 서술격 조사인 -이다도
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.

00:54:51.481 --> 00:54:54.531

그러면 A입니까? 이렇게 나왔을 때

00:54:54.631 --> 00:54:57.173

입니까 구조를 가계
되면 어떻게 된 거죠?

00:54:57.273 --> 00:55:03.049

-이다, 서술격 조사에 **ㅂ**니까가
구성이 된 거잖아요.

00:55:03.149 --> 00:55:03.976

똑같아요.

00:55:04.076 --> 00:55:07.842

그러니까 입니까가 나와도 서술격
조사 -이다라고 하면 돼요.

00:55:07.942 --> 00:55:13.992

그러니까 ~이다, ~이고, ~이지,
~이어서, ~인, ~일, ~입니까, ~이냐.

00:55:14.092 --> 00:55:16.396

활용이 500여 가지가
다 되는 거죠.

00:55:16.496 --> 00:55:19.389

그래서 이런 거 찾아내는 거
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

00:55:19.489 --> 00:55:22.852

그래서 조사들과 결합되어있는
이놈 전부 다 체언인데.

00:55:22.952 --> 00:55:25.931

이 둘 중에서 지금
의존 명사가 있어요.

00:55:26.031 --> 00:55:32.831

예를 들면 바다는 내 고향에
있어, 이렇게 이야기하면

00:55:32.931 --> 00:55:35.881

바다를 문장 첫머리에 놓게
할 수 있다는 점에서

00:55:35.981 --> 00:55:39.188

애는 무슨 명사?
자립 명사가 됩니다.

00:55:39.288 --> 00:55:40.828

그런데 우리 방금 한 것처럼

00:55:40.928 --> 00:55:43.767

것이 바다냐, 이렇게 쓸
수 있어요, 없어요?

00:55:43.867 --> 00:55:45.121
못 쓰는 거죠.

00:55:45.221 --> 00:55:47.753
그래서 애는 뭐다?
의존해주는 의존 명사.

00:55:47.853 --> 00:55:49.452
그다음 거 가겠습니다.

00:55:49.552 --> 00:55:51.348
요리할 줄 알아?

00:55:51.448 --> 00:55:56.286
명사 뭐 있어요? 출발에 없어요.

00:55:56.386 --> 00:56:00.597
요리할, 여기서 명사
끄집어내면 돼요, 안 돼요?

00:56:00.697 --> 00:56:02.004
안 되죠. 왜?

00:56:02.104 --> 00:56:04.351
요리는 명사였을지
모르지만 요리하다.

00:56:04.451 --> 00:56:07.472
하다가 붙어있는 단어 명사 아니다.

00:56:07.572 --> 00:56:09.200
요리하다는 동사로 바뀐 거예요.

00:56:09.300 --> 00:56:11.546
따라서 요리를 명사로
끄집어내면 안 됩니다.

00:56:11.646 --> 00:56:15.020
여기서 줄이 뭐가 되는 거예요?
명사.

00:56:15.120 --> 00:56:20.742
사실 그 뒤에 조사를 생략한
구조라고 봐야 되겠죠.

00:56:20.842 --> 00:56:22.714
목적격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.

00:56:22.814 --> 00:56:24.728
요리할 줄은 알아,
요리할 줄은 아니?

00:56:24.828 --> 00:56:26.503
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.

00:56:26.603 --> 00:56:29.703
줄이 뭐라고요? 의존 명사.

00:56:29.803 --> 00:56:31.625
왜?

00:56:31.725 --> 00:56:33.846
줄 알아? 이렇게 쓸 수 없죠.

00:56:33.946 --> 00:56:36.246
~할 줄 알아?
~할 줄 몰랐어.

00:56:36.346 --> 00:56:39.008
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지 줄
알아,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.

00:56:39.108 --> 00:56:41.247
따라서 애는 의존 명사가 됩니다.

00:56:41.347 --> 00:56:42.753
한번 볼게요.

00:56:42.853 --> 00:56:44.853
요리할 줄 알아?
이렇게 이야기했을 때

00:56:44.953 --> 00:56:49.762
요리할 줄 대신 이 자리에 방법을 알아?
이렇게 한다면,

00:56:49.862 --> 00:56:53.005
방법은 의존이에요, 아니에요?

00:56:53.105 --> 00:56:54.456
아니죠, 자립이죠.

00:56:54.556 --> 00:56:57.147
왜? 방법이 생겼다,
방법은 어려웠다.

00:56:57.247 --> 00:56:59.448
이런 식으로 문장 첫머리에
오게 할 수 있어요.

00:56:59.548 --> 00:57:04.172
즉 요리할, 이 관형어의 수식을 반드시
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7:04.272 --> 00:57:14.329
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
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?

00:57:14.429 --> 00:57:15.914
관형어가 되는 거죠.

00:57:16.014 --> 00:57:19.471
보이다에서 다 대신에
는 붙어서 꾸며주고.

00:57:19.571 --> 00:57:24.288
또 요리하다에서 다
대신에 르이 붙어서

00:57:24.388 --> 00:57:26.946
요리할 무엇, 이렇게
꾸며주는 겁니다.

00:57:27.046 --> 00:57:29.126

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
어떤 구성입니까?

00:57:29.226 --> 00:57:31.113

아까 관형어 만든
구성 중에 두 번째,

00:57:31.213 --> 00:57:34.013

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.

00:57:34.113 --> 00:57:35.635

아직 용어는 익숙치 않죠?

00:57:35.735 --> 00:57:38.741

관형사형 전성 어미, 뭔가가
붙어서 꾸미는 구조예요.

00:57:38.841 --> 00:57:40.099

밑에도 한번 가볼게요.

00:57:40.199 --> 00:57:42.983

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죠,
라고 이야기했어요.

00:57:43.083 --> 00:57:46.884

그러면 여기서도 역시
명사를 끄집어내게 되면

00:57:46.984 --> 00:57:50.200

그것이나 그는 대명사가 되고요.

00:57:50.300 --> 00:57:55.170

여기서는 뒤편에 없다?
따름밖에 없습니다.

00:57:55.270 --> 00:57:57.260

그런데 이 역시도
뭐가 되는 거예요?

00:57:57.360 --> 00:57:58.895

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.

00:57:58.995 --> 00:58:01.378

그러니까 따름이, 따름은
이렇게 쓸 수 없고

00:58:01.478 --> 00:58:02.986

~할 따름이다, ~일 따름이다.

00:58:03.086 --> 00:58:05.108

그래서 항상 수식받아야 되겠죠.

00:58:05.208 --> 00:58:08.164

그래서 꾸며주는 높은
애가 할이 되겠죠.

00:58:08.264 --> 00:58:11.640

하다에서 활용이 되어서
따름을 꾸며주고 있고.

00:58:11.740 --> 00:58:15.846
질문, 이쥬는 뭘까요?

00:58:15.946 --> 00:58:19.008
이쥬는 서술격 조사 -이다예요.

00:58:19.108 --> 00:58:22.045
그래서 이, 지, 요의
준말로 이쥬가 나온 거죠.

00:58:22.145 --> 00:58:29.485
예를 들면 가지요, A이지요.

00:58:29.585 --> 00:58:31.875
그래서 애 줄면 가죠.

00:58:31.975 --> 00:58:35.682
이거는 A이쥬,
이렇게 된 거잖아요.

00:58:35.782 --> 00:58:41.454
그러니까 여기에서
지요를 잘라냈을 때

00:58:41.554 --> 00:58:44.013
여기에 있는 이까지가
발견될 수 있죠.

00:58:44.113 --> 00:58:45.322
서술격 조사입니다.

00:58:45.422 --> 00:58:46.716
그다음 마지막 문장.

00:58:46.816 --> 00:58:49.345
선생님 한 분이 새로
오신대요, 라고 했을 때

00:58:49.445 --> 00:58:55.143
여기서 의존 명사는 뭘까요?
수식받아야 되는데.

00:58:55.243 --> 00:58:58.355
일단 선생님은 그냥 명사고요.

00:58:58.455 --> 00:59:04.405
여기입니다, 분이 의존 명사.

00:59:04.505 --> 00:59:06.555
조사 이랑도 붙어 있는
상황인데 체언이죠.

00:59:06.655 --> 00:59:12.245
그러면 명사인데 앞에 있는 이
한이 수개념이기는 하지만

00:59:12.345 --> 00:59:15.567
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
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

00:59:15.667 --> 00:59:18.799

열 개, 이렇게 나온다면
그때 꾸며주는 기능이에요.

00:59:18.899 --> 00:59:22.917

그래서 애가 관형사입니다,
수관형사라는 한입니다.

00:59:23.017 --> 00:59:28.713

그래서 수관형사의 수식을
받고 있기 때문에

00:59:28.813 --> 00:59:30.906

그래서 뭐가 된다?

00:59:31.006 --> 00:59:33.897

바로 의존 명사로 보면 되는 거죠.

00:59:33.997 --> 00:59:37.204

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위성
의존 명사라는 것들이

00:59:37.304 --> 00:59:39.715

우리나라에는 많아요,
풍부하게 많습니다.

00:59:39.815 --> 00:59:49.183

의존 명사 중에서도 단위성
의존 명사가 굉장히 많은데,

00:59:49.283 --> 00:59:50.937

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?

00:59:51.037 --> 00:59:52.491

마리도 있고요.

00:59:52.591 --> 00:59:57.190

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
사실은 개 같은 게 있죠.

00:59:57.290 --> 01:00:01.256

몇 척, 대도 있고,
마리도 있고요.

01:00:01.356 --> 01:00:05.037

포기도 있고요, 어제 김장했는데.

01:00:05.137 --> 01:00:08.961

그다음에 개비도 있고 이런 것들.

01:00:09.061 --> 01:00:11.382

그런데 애네들이 지금 앞에
뭐가 붙어야 됩니까?

01:00:11.482 --> 01:00:12.696

띄어 써야 됩니다.

01:00:12.796 --> 01:00:20.349

한 개, 두 척, 세 대,
네 마리, 다섯 포기, 열 개비.

01:00:20.449 --> 01:00:22.020
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.

01:00:22.120 --> 01:00:26.475
의존 명사들이 우리나라에서
되게 다양한데

01:00:26.575 --> 01:00:30.911
다양하게 쓰는 이유는 어떤
명사들과 어울리는지도

01:00:31.011 --> 01:00:32.261
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.

01:00:32.361 --> 01:00:35.085
대표적으로 개 같은 경우에는
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

01:00:35.185 --> 01:00:37.352
적은 배를 셀 때 써야
될 거 아니에요.

01:00:37.452 --> 01:00:40.475
그다음에 대 역시 기계
개념 쓸 때 써야 되고.

01:00:40.575 --> 01:00:42.035
마리는 동물을 이야기해야 되고.

01:00:42.135 --> 01:00:43.511
포기는 배추 같은 거에 써야 되고.

01:00:43.611 --> 01:00:47.085
또 개비 같은 거는 장작이나 담배
같은 거 써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?

01:00:47.185 --> 01:00:49.200
그래서 워낙 연결되는 명사들.

01:00:49.300 --> 01:00:53.077
앞에 있는 뭔가를 연결해주는
명사들과 띄어 쓸 텐데,

01:00:53.177 --> 01:00:56.308
애네들과 호응이 맞기 때문에 의존
명사가 은근히 많은 거예요.

01:00:56.408 --> 01:00:58.722
그러면 지금 잘 들으세요.

01:00:58.822 --> 01:01:00.505
이거 바로 뒤에 공부하니까

01:01:00.605 --> 01:01:02.976
이 놈들은 전부 다
품사가 뭐가 된다?

01:01:03.076 --> 01:01:06.678
이때는 수사 아니라는 거죠.
뭐가 된다?

01:01:06.778 --> 01:01:08.875
관형사.

01:01:08.975 --> 01:01:13.736
애네들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의존
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,

01:01:13.836 --> 01:01:18.310
고정된 품사 관형사고 따라서
애는 관형어라고 볼 수 있겠죠.

01:01:18.410 --> 01:01:20.199
관형사는 관형어 하위니까.

01:01:20.299 --> 01:01:23.949
그래서 애네는 관형사의 수식을
받고 있는 단위성 의존 명사,

01:01:24.049 --> 01:01:25.725
좀 많습시다.

01:01:25.825 --> 01:01:30.351
그다음 볼까요?

01:01:30.451 --> 01:01:37.349
잠시 여러분은 화면을 멈추고
잠깐 휴식을 취해도 좋겠고.

01:01:37.449 --> 01:01:40.836
물 한잔 먹고 휴식을
취했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

01:01:40.936 --> 01:01:45.131
리, 듯, 체, 채, 김, 이,
때문 등등 명사들이거든요.

01:01:45.231 --> 01:01:51.537
의존 명사들인데 여러분이
이것들을 한번 이용해서

01:01:51.637 --> 01:01:54.056
문장을 짧게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.

01:01:54.156 --> 01:01:57.129
잠시 멈춰놓고 해보도록 하세요.

01:01:57.229 --> 01:02:01.896
그러면 선생님이 예를
하나 만들어볼까요?

01:02:01.996 --> 01:02:04.413
여러분, 그냥 수동적으로
따라 오면 안 돼요.

01:02:04.513 --> 01:02:05.828
하나씩 예를 만들었죠?

01:02:05.928 --> 01:02:09.102
먼저 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02:09.202 --> 01:02:11.738

쉽게 쉽게 갈게요.

01:02:11.838 --> 01:02:19.918

그가 봤을 리가 없어.

01:02:20.018 --> 01:02:23.105

그냥 그가 봤을 리 없다,
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

01:02:23.205 --> 01:02:25.334

우리 조사를 워낙 많이 생략하니까.

01:02:25.434 --> 01:02:27.897

예를 들면 나는 빵을
먹을래, 이렇게 하지 않고

01:02:27.997 --> 01:02:29.467

나 빵 먹을래, 이렇게
많이 하잖아요.

01:02:29.567 --> 01:02:32.145

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
조사를 많이 빼버려요.

01:02:32.245 --> 01:02:34.972

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
조사를 뺄 수도 있어요.

01:02:35.072 --> 01:02:37.477

그래서 그가 봤을 리가
없다, 불안에 떨면서.

01:02:37.577 --> 01:02:41.590

그러면 지금 리는 리가 없다,
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.

01:02:41.690 --> 01:02:44.251

그러면 여기서의 봤을이
뭐가 되는 거죠?

01:02:44.351 --> 01:02:47.989

관형어 구조가 되는 겁니다.

01:02:48.089 --> 01:02:51.549

다음 듯.

01:02:51.649 --> 01:03:06.944

그녀가 갈 듯 짐을 꾸렸다.

01:03:13.690 --> 01:03:20.887

이거 듯 같은 경우에는 듯이라는
의존 명사로도 있어요.

01:03:20.987 --> 01:03:24.355

듯은 듯이의 준말이라고
볼 수 있는 놈이어서

01:03:24.455 --> 01:03:26.100

듯, 듯이는 똑같은 놈입니다.

01:03:26.200 --> 01:03:27.948

그래서 그가 같 듯이 짐을 꾸렸다.

01:03:28.048 --> 01:03:31.542
이거는 조사가 아니라 듯도 있고
듯이라는 단어도 존재하는 겁니다.

01:03:31.642 --> 01:03:34.341
그다음에 이 놈 한번
구분해보겠어요?

01:03:34.441 --> 01:03:38.655
위에 있는 체하고
채, 언제 쓸까요?

01:03:38.755 --> 01:03:44.640
일단 위에 있는 체는
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

01:03:44.740 --> 01:03:48.299
의존 명사 중에 이것도 있거든요.

01:03:48.399 --> 01:03:49.764
척하고 비슷한 의미.

01:03:49.864 --> 01:03:56.565
그래서 척할 때 이 녀가 여기
체에서 채와 연결되는 거니까

01:03:56.665 --> 01:03:59.445
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
이해하기 쉽지 않을까.

01:03:59.545 --> 01:04:01.628
예쁜 척 좀 그만 해.

01:04:01.728 --> 01:04:05.144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.

01:04:09.992 --> 01:04:13.329
이렇게 이야기했을 때
이 척이 의존 명사가 되죠.

01:04:13.429 --> 01:04:17.142
그러면 예쁜 역시 마찬가지로
전부 다 가다의 활용어.

01:04:17.242 --> 01:04:18.576
같 듯.

01:04:18.676 --> 01:04:20.834
예쁘다의 활용은 예쁜 척.

01:04:20.934 --> 01:04:23.849
이런 식으로 용언의 활용형으로
관형어 많이 만들어주죠.

01:04:23.949 --> 01:04:27.821
그러면 밑에 있는
채는 언제 쓸까요?

01:04:27.921 --> 01:04:42.797

옷을 벗은 채로 돌아다니지 마라.

01:04:42.897 --> 01:04:47.841

이렇게 나온다면 옷을 벗다에
다 대신에 은을 취해줘서

01:04:47.941 --> 01:04:50.738

관형어 기능 해주고 이렇게
채를 꾸며주는 겁니다.

01:04:50.838 --> 01:04:53.693

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문장
첫머리에 오게 할 수 없어요.

01:04:53.793 --> 01:04:55.146

그래서 척 좀 그만 해.

01:04:55.246 --> 01:04:56.699

채로 돌아다니지 마.
이렇게 할 수가 없죠.

01:04:56.799 --> 01:04:59.573

밑에 김.

01:04:59.673 --> 01:05:07.831

기왕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라.

01:05:07.931 --> 01:05:09.470

이런 거 쓰셨어요?

01:05:09.570 --> 01:05:12.755

~하는 김에, 이때의
김으로 쓰면 되겠습니다.

01:05:12.855 --> 01:05:16.024

그다음에 이, 의존
명사 뭐가 있을까요?

01:05:16.124 --> 01:05:18.282

뭐 생각하셨어요?

01:05:18.382 --> 01:05:20.915

사람할 때 쓰는 게 이거든요.

01:05:21.015 --> 01:05:26.906

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가 누구야?

01:05:27.006 --> 01:05:31.701

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 있겠죠.

01:05:31.801 --> 01:05:32.990

때문.

01:05:33.090 --> 01:05:34.691

이거 다 너 때문이야.

01:05:34.791 --> 01:05:43.088

너 띄고 때문이야.

01:05:43.188 --> 01:05:45.266

역시 마찬가지로요.

01:05:45.366 --> 01:05:46.763
때문이야, 이렇게 쓸 수 없어요.

01:05:46.863 --> 01:05:49.252
누구 때문인지가 반드시
나와야 되는데.

01:05:49.352 --> 01:05:51.153
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예문들은

01:05:51.253 --> 01:05:54.529
하나 같이 전부 다 용언의
활용형으로 만들었어요.

01:05:54.629 --> 01:05:57.734
보다, 보았을

01:05:57.834 --> 01:05:59.340
가다, 갈

01:05:59.440 --> 01:06:00.632
예쁘다, 예쁜

01:06:00.732 --> 01:06:01.682
벗다, 벗은

01:06:01.782 --> 01:06:02.664
오다, 온

01:06:02.764 --> 01:06:03.721
말하다, 말하는

01:06:03.821 --> 01:06:06.181
이렇게 지금 전부 다
관형사형 전성 어미.

01:06:06.281 --> 01:06:11.971
이렇게 붙여준 상태에서
꾸며주게끔 만들었죠?

01:06:12.071 --> 01:06:15.412
그런데 애 같은 경우에는 몇
번에 해당하는 거예요?

01:06:15.512 --> 01:06:18.354
너 때문이야, 라고 할 때
너가 때문을 꾸며주고 있는데

01:06:18.454 --> 01:06:23.896
애는 체언 단독으로 관형어 기능을 하는
네 번째 형태에 해당하는 겁니다.

01:06:23.996 --> 01:06:25.492
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.

01:06:25.592 --> 01:06:27.316
이런 예문들 만들어봤으면

01:06:27.416 --> 01:06:30.242
여러분이 의존 명사 개념에 좀

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.

01:06:30.342 --> 01:06:33.051
문제가 이쪽이 녹록치가 않아요.

01:06:33.151 --> 01:06:38.025
의존 명사 부분이 녹록치가 않아요.

01:06:38.125 --> 01:06:41.529
얼마나 녹록치 않느냐,
이 부분입니다.

01:06:41.629 --> 01:06:46.865
두 문장, 두 문장,
두 문장들에서 같은 형태의 명사들이

01:06:46.965 --> 01:06:51.660
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.

01:06:54.065 --> 01:06:57.911
그런데 형태가 같지만 둘
다 자립 명사이거나

01:06:58.011 --> 01:07:00.441
둘 다 의존 명사가 아닐
수도 있다는 겁니다.

01:07:00.541 --> 01:07:03.739
그래서 그거 구분을
해보도록 할게요.

01:07:03.839 --> 01:07:09.304
아버지는 집을 지을 터를 마련했다.

01:07:09.404 --> 01:07:11.464
나는 내일 꼭 영화를 볼 터이다.

01:07:11.564 --> 01:07:13.551
볼 터이다, 좀 이상해요.

01:07:13.651 --> 01:07:15.499
그래서 많이 줄여서 써요.

01:07:15.599 --> 01:07:18.639
어떻게 하나면 나는 내일 꼭
영화를 볼 테다, 이렇게 쓰죠.

01:07:18.739 --> 01:07:23.227
이렇게 많이 쓰죠?

01:07:23.327 --> 01:07:27.634
그런데 볼 테다가 결국
볼 터이다의 준말인 거거든요.

01:07:27.734 --> 01:07:31.233
그런데 이 테다를 꼬집어냈을 때는
터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.

01:07:31.333 --> 01:07:36.191
그러면 나 집에 갈 테니,
이거는 뭐의 준말이라고요?

01:07:36.291 --> 01:07:39.018

나 집에 갈 터이니,
이거의 준말인 겁니다.

01:07:39.118 --> 01:07:40.301

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.

01:07:40.401 --> 01:07:43.423

이놈하고 이놈 같은
경우에는 어떻게?

01:07:43.523 --> 01:07:45.130

같은 게 아니죠.

01:07:45.230 --> 01:07:48.484

애 지금 문장에 앞에
관형어가 있기는 해요.

01:07:48.584 --> 01:07:51.386

짓다가 지을로 바뀌어서
수식해주는 거니까.

01:07:51.486 --> 01:07:56.745

그런데 이 문장을 터를 마련했다,
터가 좋다 이렇게 쓸 수 있죠.

01:07:56.845 --> 01:07:59.834

문장 첫머리에 오게 할 수
있는 단어 아납니까?

01:07:59.934 --> 01:08:03.794

그래요, 애는 자립 명사였던 거야.

01:08:03.894 --> 01:08:06.887

애는 자립 명사입니다.

01:08:06.987 --> 01:08:09.411

그에 반해 이놈은 어떨까요?

01:08:09.511 --> 01:08:11.373

터이다, 터가?
이렇게 쓸 수가 없죠.

01:08:11.473 --> 01:08:14.145

~하는, ~할 이렇게
수식받아야 돼.

01:08:14.245 --> 01:08:17.396

그러면 애는 뭐가 된다?
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, 애가.

01:08:17.496 --> 01:08:19.389

구분되겠죠?

01:08:19.489 --> 01:08:22.930

그러니까 재빨리 문장 내에
있는 놈을 첫머리에,

01:08:23.030 --> 01:08:26.496

문장 첫머리로부터 문장을 만들 수

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.

01:08:26.596 --> 01:08:28.348
밑에 있는 거 뽀족한 수가 없을까?

01:08:28.448 --> 01:08:31.823
밑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

01:08:31.923 --> 01:08:36.988
어떤 게 자립이고
어떤 게 의존일까요?

01:08:37.088 --> 01:08:40.944
위에 거, 수가 낮다, 수가
좋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

01:08:41.044 --> 01:08:45.522
즉 방법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에는
자립적인 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.

01:08:45.622 --> 01:08:47.630
애가 자립 명사.

01:08:47.730 --> 01:08:53.473
그에 반해 수도 있어,
그럴 경우가 있어.

01:08:53.573 --> 01:08:57.115
이렇게 경우의 뜻으로 쓸 수 있는
높은 혼자 쓰일 수가 없는 거죠.

01:08:57.215 --> 01:08:59.046
그러니까 살다보면
그럴 경우도 있지.

01:08:59.146 --> 01:09:03.684
그런 경우도 있지 할 때의 수는
의존 명사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.

01:09:03.784 --> 01:09:08.134
이런 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
때는 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

01:09:08.234 --> 01:09:10.464
겨울이라 세찬 바람이 불고 있다.

01:09:10.564 --> 01:09:12.903
너무나 당연히 자립 명사네요.

01:09:13.003 --> 01:09:15.101
바람이 불고 있다.

01:09:15.201 --> 01:09:17.144
세찬 관형어 수식어
없어도 되잖아요.

01:09:17.244 --> 01:09:19.490
그런데 밑에 잠옷 바람으로
돌아다니지 마라.

01:09:19.590 --> 01:09:22.157

이때의 잠옷, 명사 단독으로
꾸며주는 것 같은데

01:09:22.257 --> 01:09:24.434

너 바람으로 돌아다니지 마,
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.

01:09:24.534 --> 01:09:27.011

그러니까 무엇 바람인지가
나와줘야 되겠죠.

01:09:27.111 --> 01:09:31.495

그러니까 애는 뭐가 된다?
의존 명사.

01:09:31.595 --> 01:09:32.126

구분 가능합니까?

01:09:32.226 --> 01:09:33.366

다음.

01:09:33.466 --> 01:09:36.103

이번에는 어떤 문제가
나올 수 있냐면

01:09:36.203 --> 01:09:40.933

이제 더 어려운 문제일
수가 있는데.

01:09:41.033 --> 01:09:45.441

띄어쓰기를 물어보게
되면 많이 어려워지고

01:09:45.541 --> 01:09:52.291

그러나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준
상태면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.

01:09:52.391 --> 01:09:58.866

이거를 띄어 쓸 거냐, 말 거냐를
물어보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.

01:09:58.966 --> 01:10:01.814

이런 것들 구분해보도록
하겠습니다.

01:10:01.914 --> 01:10:04.059

먼저 위에 있는 이 세 문장.

01:10:04.159 --> 01:10:07.138

이렇게 3개, 또 2개, 2개를
지금 살펴보면 되는데.

01:10:07.238 --> 01:10:09.405

첫 번째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.

01:10:09.505 --> 01:10:12.228

얘기를 들어보니 네가
화를 낼 만도 하다.

01:10:12.328 --> 01:10:15.431

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

만, 뒤에 조사 도가 붙었고요.

01:10:15.531 --> 01:10:18.222

화가 낼 만하다, 이런
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.

01:10:18.322 --> 01:10:24.757

여기서 만 같은 경우에는 앞에
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.

01:10:24.857 --> 01:10:29.431

화를 내다 할 때 다 대신에
르을 취해줘서 낼 무엇.

01:10:29.531 --> 01:10:32.414

그런데 이거 앞에를 다
잘라내서 만도 하다.

01:10:32.514 --> 01:10:33.865

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.

01:10:33.965 --> 01:10:37.020

그러니까 애는 의존
명사인 게 분명해요.

01:10:37.120 --> 01:10:39.121

밑에 것도 마찬가지로.

01:10:39.221 --> 01:10:42.579

우리는 만난 지 세 번
만에 결혼하기로 했다.

01:10:42.679 --> 01:10:44.671
횃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.

01:10:44.771 --> 01:10:47.373

그러니까 수와 관련된
거 뒤에 나오는 건데

01:10:47.473 --> 01:10:50.198

그러면 우리는 만에 결혼하기로
했다,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.

01:10:50.298 --> 01:10:53.650

몇 번 만에, 앞에 꼭 무엇이
나와주고 수식을 해줘야

01:10:53.750 --> 01:10:57.483

만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
애도 의존 명사입니다.

01:10:57.583 --> 01:10:59.347

그런데 애를 잘 보세요.

01:10:59.447 --> 01:11:03.164

그렇게 잠만 잘 거면, 이렇게 할 때
이때 만을 띄어 쓰겠습니까?

01:11:03.264 --> 01:11:07.445

아니죠, 형태는 동일한데
이 만은 품사가 뭐야?

01:11:07.545 --> 01:11:09.026
조사인 거야.

01:11:09.126 --> 01:11:12.767
그래서 이 잠이라는 명사 뒤에
찰싹 붙여서 써야 되는 거지

01:11:12.867 --> 01:11:15.954
애를 띄어서 수식받는 거라고
볼 수가 없었던 거죠.

01:11:16.054 --> 01:11:21.251
그래서 지금 여기는 조사랑 헷갈릴 만한
의존 명사를 몇 가지 잡아봤습니다.

01:11:21.351 --> 01:11:23.231
조사가 되고요.

01:11:23.331 --> 01:11:25.521
그다음 밑에 나도 할 만큼은 했어.

01:11:25.621 --> 01:11:27.450
이때는 이렇게 띄어 써야 돼요.
왜?

01:11:27.550 --> 01:11:28.922
할이 뭐가 됩니까?

01:11:29.022 --> 01:11:32.284
관형어, 하다에 르 붙어서
관형어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?

01:11:32.384 --> 01:11:35.723
그래서 할 만큼은 했어,
조사랑도 붙었고요.

01:11:35.823 --> 01:11:37.870
그러면 애는 의존 명사.

01:11:37.970 --> 01:11:39.282
그런데 밑에 있는 거.

01:11:39.382 --> 01:11:40.437
나도 너만큼은 했어.

01:11:40.537 --> 01:11:45.624
이럴 때 너라는 대명사, 즉
체언 뒤에 붙여 써야만 하겠죠.

01:11:45.724 --> 01:11:47.900
왜? 만큼이 뭐일 테니까?

01:11:48.000 --> 01:11:50.277
조사일 테니까, 붙여 쓸 수 있다면.

01:11:50.377 --> 01:11:52.939
그래서 애가 조사가 되는 거죠.

01:11:53.039 --> 01:11:57.082
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

이것들을 보면 구조적으로

01:11:57.182 --> 01:11:59.833
용언의 관형형을 취해주고 있으면

01:11:59.933 --> 01:12:02.264
용언이 활용되는 관형어처럼
쓰이고 있으면

01:12:02.364 --> 01:12:05.235
그러면 의존 명사가 뒤에 나와야
돼,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.

01:12:05.335 --> 01:12:08.553
이렇게 명사 단위 또는
대명사 단위가 나와주면

01:12:08.653 --> 01:12:11.088
붙여 써야 되는 조사구나,
이렇게 보면 돼요.

01:12:11.188 --> 01:12:12.858
마지막 것도 동일해요.

01:12:12.958 --> 01:12:15.078
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?

01:12:15.178 --> 01:12:18.019
이럴 때 시키다에
시키는, 이렇게 바뀌면서

01:12:18.119 --> 01:12:20.730
시키는 무엇, 시키는 무엇
이렇게 꾸밈받고 있죠?

01:12:20.830 --> 01:12:24.783
그래서 여기에서의 대로가 뭐가 된다?
의존 명사.

01:12:24.883 --> 01:12:27.736
그리고 이렇게 싸우지
말고 법대로 합시다.

01:12:27.836 --> 01:12:30.206
이럴 때는 이 법 뒤에
찰싹 붙였잖아요.

01:12:30.306 --> 01:12:31.594
그러면 애가 뭐가 된다?

01:12:31.694 --> 01:12:35.115
그렇죠, 조사가 되는 거죠.

01:12:35.215 --> 01:12:39.217
이렇게 해서 자립 명사하고
의존 명사에 대한 구분이

01:12:39.317 --> 01:12:42.398
가장 까다로운 문제로
나올 수 있습니다.

01:12:42.498 --> 01:12:43.866
그래서 이거 잘 챙겨주셔야 되고.

01:12:43.966 --> 01:12:46.285
의존 명사 예들 충분히
훈련하셔야 돼요.

01:12:46.385 --> 01:12:48.588
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01:12:48.688 --> 01:12:52.855
사실 여기에 더 구분할 수 있는
놈이라고 한다면 유정, 무정.

01:12:52.955 --> 01:12:56.800
교재에 다 실려 있는데
잘 읽어보시고

01:12:56.900 --> 01:12:59.861
유정 명사나 무정 명사를
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

01:12:59.961 --> 01:13:01.557
교과서에서는 많이
다루지는 않습니다.

01:13:01.657 --> 01:13:03.384
그런데 읽으면 충분히
알 수 있는 거.

01:13:03.484 --> 01:13:06.004
감정을 갖고 있다고
보면 유정 명사.

01:13:06.104 --> 01:13:07.694
그렇지 않으면 무정 명사.

01:13:07.794 --> 01:13:09.349
하나만 기억하면 돼요.

01:13:09.449 --> 01:13:15.146
이렇게 유정 명사와 무정
명사를 구분할 때에는

01:13:19.593 --> 01:13:24.242
뒤에 조사 결합이 사실 차이가
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

01:13:24.342 --> 01:13:29.356
바로 부사격 조사 예제와
예의 선택이거든요.

01:13:29.456 --> 01:13:31.571
이 선택에 있어서 제약이 붙어요.

01:13:31.671 --> 01:13:36.470
유정 명사로는 사람이나
동물에 해당하는 거니까

01:13:36.570 --> 01:13:43.864
그냥 강아지로 가고요.

01:13:43.964 --> 01:13:46.906

그다음 무정 명사는
사람이 아닌 존재니까

01:13:47.006 --> 01:13:50.534

선인장으로 가겠습니다.

01:13:50.634 --> 01:13:57.664

그리고 뒤에 물을 주었다,
이거를 쓰고 싶어요.

01:13:57.764 --> 01:14:02.301

강아지에 물을 주었다예요,
강아지에게 물을 주었다예요?

01:14:02.401 --> 01:14:05.475

그렇죠, 강아지에게 물을 주었다.

01:14:05.575 --> 01:14:07.460

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겠죠.

01:14:07.560 --> 01:14:09.746

그에 반해 선인장에게
물을 주었다예요,

01:14:09.846 --> 01:14:11.913

선인장에 물을 주었다예요?

01:14:12.013 --> 01:14:15.396

선인장에 물을 주었다,
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

01:14:15.496 --> 01:14:18.551

그래서 딱 조사가 갈리는
것이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.

01:14:18.651 --> 01:14:21.114

유정 명사 뒤에는 에게를 쓰고

01:14:21.214 --> 01:14:24.420

무정 명사 뒤에는 에를 써야
한다는 법칙인 거예요.

01:14:24.520 --> 01:14:27.146

그래서 이거로 무정, 유정
구분할 수 있는 거고.

01:14:27.246 --> 01:14:29.523

물론 여기에 동의 안
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.

01:14:29.623 --> 01:14:33.278

왜 우리 집에서 기르는 선인장은 음악도
듣고 정말 좋아한다 말이에요.

01:14:33.378 --> 01:14:35.759

감정을 가지고 있어요,
이런 거는 의미 없어.

01:14:35.859 --> 01:14:37.299

문법적으로는 의미 없어요.

01:14:37.399 --> 01:14:39.869

여러분의 심성이 고아서 그렇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.

01:14:39.969 --> 01:14:43.733

그다음에 이제 대명사 넘어갑니다.

01:14:43.833 --> 01:14:49.509

대명사로 넘어오면 명사는 구체적인 이름이었잖아.

01:14:49.609 --> 01:14:53.968

그러면 그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이름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.

01:14:54.068 --> 01:15:02.230

그래서 대명사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

01:15:02.330 --> 01:15:09.314

사람을 지칭해줄 수 있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.

01:15:09.414 --> 01:15:18.038

그런데 사람이 아닌 장소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

01:15:18.138 --> 01:15:24.682

이런 것들을 지칭해주게 되면 그거를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.

01:15:24.782 --> 01:15:28.539

그래서 크게 또 나누게 되면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

01:15:28.639 --> 01:15:32.993

기본적으로 1인칭 대명사, 2인칭 대명사, 3인칭 대명사라고 하는

01:15:33.093 --> 01:15:36.040

정칭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.

01:15:36.140 --> 01:15:38.390

다음에 지시 대명사라고 이야기 한다면

01:15:38.490 --> 01:15:44.218

여기에서는 사물을 지시해주고 장소를 지시해주고

01:15:44.318 --> 01:15:48.116

그다음에 시간을 지시해줄 수 있는 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.

01:15:48.216 --> 01:15:50.514

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해볼게요.

01:15:50.614 --> 01:15:53.685

보세요.

01:15:59.280 --> 01:16:01.894
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16:01.994 --> 01:16:04.776
누구는 가수이다, 라고 했어요.

01:16:04.876 --> 01:16:06.880
RM은 가수이다,
랩몬스터는 가수이다.

01:16:06.980 --> 01:16:09.661
이렇게 할 때 사람
이름을 지칭해주게 되면

01:16:09.761 --> 01:16:11.711
그거는 명사가 되는 거죠.

01:16:11.811 --> 01:16:15.710
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는
표현으로 뭐를 쓸 거냐는 겁니다.

01:16:15.810 --> 01:16:18.523
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
있는 게 되게 많은데.

01:16:18.623 --> 01:16:21.970
일단 나는 가수이다.

01:16:22.070 --> 01:16:25.801
그다음에 우리는 가수이다,
이렇게 쓸 수 있겠죠.

01:16:25.901 --> 01:16:30.090
이게 지금 몇 인칭이에요?

01:16:30.190 --> 01:16:35.019
나, 우리라고 하면
어려운 게 아닙니다.

01:16:35.119 --> 01:16:37.700
1인칭이라는 게 자기를
이야기하는 거잖아요.

01:16:37.800 --> 01:16:43.290
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
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

01:16:43.390 --> 01:16:46.587
복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
나올 수 있는 거죠.

01:16:46.687 --> 01:16:48.939
그러니까 1인칭 복수
대명사, 우리.

01:16:49.039 --> 01:16:51.652
사람 이름을 지칭한
게 아니기 때문에.

01:16:51.752 --> 01:16:54.065
그런데 이거 좀 겸손하게

표현할 수도 있죠.

01:16:54.165 --> 01:16:55.888
그러니까 저도 쓸 수 있어요.

01:16:55.988 --> 01:16:58.455
저는 가수입니다,
저도 쓸 수 있고.

01:16:58.555 --> 01:17:02.534
또 우리를 겸손하게 표현한다면
저희를 쓸 수 있을 텐데.

01:17:02.634 --> 01:17:06.572
지금 우리가 현대 문법
상에서는 이 정도,

01:17:06.672 --> 01:17:10.767
4개 정도를 1인칭으로
주로 사용을 하죠.

01:17:10.867 --> 01:17:15.075
그런데 옛날에는 1인칭
대명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

01:17:15.175 --> 01:17:17.654
왜냐하면 앞에 소 자만 붙이게 되면

01:17:17.754 --> 01:17:21.713
그 소 자 뒤에 뭔가를 붙여서 상대적인
자기를 지칭할 수 있었던 말이죠.

01:17:21.813 --> 01:17:26.141
예를 들면 소자, 소인이,
소신 이런 거 쓰잖아요.

01:17:26.241 --> 01:17:29.210
이렇게 소 자를 붙이면서
자기 이름은 이야기 안 하고

01:17:29.310 --> 01:17:32.003
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
사실은 대명사예요.

01:17:32.103 --> 01:17:34.213
임금이라면 어떻게 씁니까?

01:17:34.313 --> 01:17:36.224
여기에서 짐은 가수이다.

01:17:36.324 --> 01:17:38.919
과인은 가수이다, 이런
거 쓸 수 있잖아요.

01:17:39.019 --> 01:17:40.824
그러면 이것도 1인칭
대명사예요, 사실은.

01:17:40.924 --> 01:17:45.585
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도는 가수야,
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.

01:17:45.685 --> 01:17:49.633

그래서 이름을 대신하는 표현을
쓴다면 이게 1인칭이죠.

01:17:49.733 --> 01:17:53.484

그다음에 2인칭으로 쓴다면
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?

01:17:53.584 --> 01:17:56.580

듣는 청자를 지칭해주는 표현이
2인칭에 해당하는 거잖아요.

01:17:56.680 --> 01:17:58.483

그러면 청자를 지칭하는
거 뭐 있을까요?

01:17:58.583 --> 01:18:00.316

너는 가수이다.

01:18:00.416 --> 01:18:02.444

복수, 너희는 가수이다.

01:18:02.544 --> 01:18:04.093

너희들도 괜찮고요.

01:18:04.193 --> 01:18:06.329

그다음요.

01:18:06.429 --> 01:18:09.542

다른 2인칭 없어요?

01:18:09.642 --> 01:18:12.379

당신.

01:18:12.479 --> 01:18:19.458

당신은, 그대는.

01:18:19.558 --> 01:18:22.422

조금 높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.

01:18:22.522 --> 01:18:24.928

귀하는, 이런 말 들어보셨죠?

01:18:25.028 --> 01:18:26.654

귀하께서, 이런 표현 쓰는데.

01:18:26.754 --> 01:18:30.421

이게 2인칭으로 쓰이는 거죠.

01:18:30.521 --> 01:18:34.385

3인칭은 말하는 화자도
아니고 듣는 청자도 아닌

01:18:34.485 --> 01:18:36.867

제3자를 지칭하는 게
3인칭이잖아요.

01:18:36.967 --> 01:18:40.736

1인칭은 화자, 2인칭은 청자,

01:18:40.836 --> 01:18:44.735
그다음에 3인칭은 제3자를 이야기하는
거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?

01:18:44.835 --> 01:18:48.655
그, 그녀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요.

01:18:48.755 --> 01:18:51.077
이거를 잘 보세요.

01:18:51.177 --> 01:18:58.194
이분, 그분, 저분
이거 다 붙여 쓰고요.

01:18:58.294 --> 01:19:03.437
이놈, 저놈, 그놈 이렇게
쓸 수도 있고요.

01:19:03.537 --> 01:19:06.633
이녀석, 저녀석, 그녀석
이런 단어도 있고 한데.

01:19:06.733 --> 01:19:09.272
지금 이게 뭐냐면
이, 그, 저 시리즈거든요.

01:19:09.372 --> 01:19:12.779
그러니까 애는 지금
지시해주는 표현에서는

01:19:12.879 --> 01:19:15.800
다른 품사에도 좀 존재할 텐데
애는 한 단어 만들어진 거예요.

01:19:15.900 --> 01:19:17.079
잘 보세요.

01:19:17.179 --> 01:19:21.193
우리 이이가, 저이가, 그이가
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.

01:19:21.293 --> 01:19:25.042
이라는 의존 명사 더해서
만들어줄 수도 있는데.

01:19:25.142 --> 01:19:27.923
이, 그, 저의 위치가
좀 다르잖아요.

01:19:28.023 --> 01:19:29.639
그러니까 이는 누구예요?

01:19:29.739 --> 01:19:31.147
이분하면 누구를 지칭해야 돼?

01:19:31.247 --> 01:19:33.308
나한테 가까운 사람, 이분은.

01:19:33.408 --> 01:19:36.505
청자에게는 좀 멀고 화자에게
제일 가까워야 돼.

01:19:36.605 --> 01:19:38.216
이분은, 이렇게 쓸 수 있겠죠.

01:19:38.316 --> 01:19:41.560
저분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죠?

01:19:41.660 --> 01:19:44.565
화자와 청자에게 멀리
떨어져 있어요.

01:19:44.665 --> 01:19:47.392
그런데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지만
저분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.

01:19:47.492 --> 01:19:49.422
그분은 어떻게 쓸까요?

01:19:49.522 --> 01:19:50.735
두 가지 경우예요.

01:19:50.835 --> 01:19:53.776
그리고 할 때를 주의하셔야
되는데 그분은 두 가지가,

01:19:53.876 --> 01:19:57.146
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세요?

01:19:57.246 --> 01:19:59.308
그분은 누구세요?
이렇게 물어본다면,

01:19:59.408 --> 01:20:03.152
지금 화자에게는 멀지만 청자에게 가까운
누군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.

01:20:03.252 --> 01:20:06.420
또는 그분이 말했잖아,
이렇게 말한다면

01:20:06.520 --> 01:20:10.387
들이 있는 곳에 없는
존재, 아예 없는 존재.

01:20:10.487 --> 01:20:11.560
저보다 더 멀리 있는.

01:20:11.660 --> 01:20:13.295
저분하면 일단 보여야 되잖아요.

01:20:13.395 --> 01:20:16.804
그런데 아예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지칭할
때 그분을 쓸 수도 있는 거죠.

01:20:16.904 --> 01:20:21.885
그러니까 그런 방식, 위치는 우리가
일상생활에서 써왔기 때문에

01:20:21.985 --> 01:20:25.628
그런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
있을 거라고 봅니다.

01:20:25.728 --> 01:20:27.429

이게 3인칭이에요.

01:20:27.529 --> 01:20:29.446

다음 보도록 할게요.

01:20:29.546 --> 01:20:34.606

여기 지금 연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
지금 사물을 지시하고 싶은 건데.

01:20:34.706 --> 01:20:38.642

그러면 여기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서
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.

01:20:38.742 --> 01:20:41.502

그러니까 이 모나미는 연필이다.

01:20:41.602 --> 01:20:42.874

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.

01:20:42.974 --> 01:20:46.080

여기서는 지금 대신하는 표현을
쓰는 거니까, 어떤 거 있을까요?

01:20:46.180 --> 01:20:48.890

역시나 이, 그, 저
시리즈가 있을 수 있겠죠.

01:20:48.990 --> 01:20:53.033

이것은 연필이다, 그것은
연필이다, 저것은 연필이다.

01:20:53.133 --> 01:20:55.330

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.

01:20:55.430 --> 01:20:57.282

이게 사물 지시 대명사라고
볼 수 있잖아요.

01:20:57.382 --> 01:21:01.904

왜? 연필을 대신하는 지칭하는
명사들로 쓰이는 거니까요.

01:21:02.004 --> 01:21:06.179

그다음 이틀 뒤에 ()에서
만나자, 라고 하면

01:21:06.279 --> 01:21:08.537

여기는 뭐가 될까요? 장소를
지시하고 싶은 거예요.

01:21:08.637 --> 01:21:10.093

그러면 뭐가 있습니까?

01:21:10.193 --> 01:21:14.557

그곳에서 만나자, 이곳에서
만나자, 저곳에서 만나자.

01:21:14.657 --> 01:21:16.515

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.

01:21:16.615 --> 01:21:18.190

예들은 조금 더 많습니다.

01:21:18.290 --> 01:21:21.105

많은데 어쨌든 사물 지시 대명사들,

01:21:21.205 --> 01:21:23.718

그다음에 장소 지시
대명사들 몇 개 봤고.

01:21:23.818 --> 01:21:25.516

우리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.

01:21:25.616 --> 01:21:28.896

시간 지시 대명사는 딱 하나밖에
없으니까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.

01:21:28.996 --> 01:21:33.664

언제라는 놈이 이게 시간을 지시 할
수 있는 대명사로 유일해요.

01:21:33.764 --> 01:21:35.103

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

01:21:35.203 --> 01:21:37.887

그래서 언제가 좋겠어?
이런 식으로 쓸 때

01:21:37.987 --> 01:21:40.076

이게 시간을 지시하는
대명사로 쓰입니다.

01:21:40.176 --> 01:21:43.397

정확하게 3시 15분,
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

01:21:43.497 --> 01:21:45.440

언제는,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

01:21:45.540 --> 01:21:49.585

그 3시 15분을 대체해서 표현하는
거니까 시간 지시 대명사라고 해요.

01:21:49.685 --> 01:21:58.763

여기서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
게 뭐냐면 재귀칭입니다.

01:21:58.863 --> 01:22:01.308

재귀칭은 뭐냐?

01:22:01.408 --> 01:22:21.295

앞에서 언급된 제3자를 다시
말할 때 쓰는 대명사를

01:22:21.395 --> 01:22:26.984

재귀칭 대명사라는 표현을 써요.

01:22:27.084 --> 01:22:29.736

앞에서 언급된 제3자를 다시
말할 때 쓰는 대명사를

01:22:29.836 --> 01:22:33.054

재귀칭 대명사를 쓰는데 이런
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.

01:22:33.154 --> 01:22:36.853

여기 한번 볼게요.

01:22:36.953 --> 01:22:46.128

철수는 철수가 잘생겼대.

01:22:46.228 --> 01:22:49.915

말이 되냐? 철수는
철수가 잘생겼대.

01:22:50.015 --> 01:22:51.257

이렇게 안 쓰거든요,
우리 어떻게 합니까?

01:22:51.357 --> 01:22:55.290

철수는 지가 잘생겼대, 지.

01:22:55.390 --> 01:22:59.016

약간 감정 실어서 지의
정확한 표현은 뭐예요?

01:22:59.116 --> 01:23:01.426

자기, 이런 표현 쓰잖아요.

01:23:01.526 --> 01:23:04.207

이때의 자기는 누구를
대신하는 표현이에요?

01:23:04.307 --> 01:23:08.466

앞에 언급된, 지금 화자와 청자가
아닌 제3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1:23:08.566 --> 01:23:11.623

그래서 이게 바로 재귀
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.

01:23:11.723 --> 01:23:13.661

재귀칭 대명사라는 표현을 쓰는데.

01:23:13.761 --> 01:23:16.501

밑에 있는 문장이 우리
교과서에 있는 예문이기도 한데

01:23:16.601 --> 01:23:19.951

여기서 지금 재귀칭을 찾을
수가 있을 것 같아요.

01:23:20.051 --> 01:23:21.705

어떤 걸까요?

01:23:21.805 --> 01:23:26.164

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
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.

01:23:26.264 --> 01:23:29.056

눈치채셨습니까? 뭐가

재귀칭 대명사게요?

01:23:29.156 --> 01:23:31.451

바로 이놈입니다.

01:23:31.551 --> 01:23:34.129

그러면 이놈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,

01:23:34.229 --> 01:23:37.407

당신이라는 표현이

2인칭 아니었나요?

01:23:37.507 --> 01:23:38.977

네, 2인칭으로도 쓰여요.

01:23:39.077 --> 01:23:41.288

그런데 2인칭이 아닐

수도 있다는 거죠.

01:23:41.388 --> 01:23:43.905

이렇게 재귀칭으로

쓰일 수도 있습니다.

01:23:44.005 --> 01:23:45.387

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,

01:23:45.487 --> 01:23:48.951

물론 문맥에서 할아버지께서는

지금 살아 생전에

01:23:49.051 --> 01:23:53.514

당신, 너의 책, 장서를

되게 소중히 여기셨어.

01:23:53.614 --> 01:23:55.120

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

01:23:55.220 --> 01:23:58.400

그런데 문맥이 좀 이상한 게

할아버지가 자기 소유도 아닌데

01:23:58.500 --> 01:24:00.956

왜 칭자의 책을 소중히

여겨, 이상하잖아.

01:24:01.056 --> 01:24:02.620

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?

01:24:02.720 --> 01:24:04.923

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장서를,

01:24:05.023 --> 01:24:08.297

할머니께서 자기가 평소에

사놓으시고 보관하신

01:24:08.397 --> 01:24:11.135

그 책을 소중하게

여기셨다는 내용이니까

01:24:11.235 --> 01:24:14.040

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,

이렇게 말을 안 하고

01:24:14.140 --> 01:24:18.601
다시 제3자의 재귀칭으로
당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.

01:24:18.701 --> 01:24:21.406
언제 쓰겠습니까?
높임의 표현에서.

01:24:21.506 --> 01:24:24.592
그래서 이 당신이라는 것이
재귀칭이라고 쓰일 때는

01:24:24.692 --> 01:24:31.674
높임의 재귀칭으로 사용을 한다고
기억하면 되는 거예요.

01:24:31.774 --> 01:24:34.429
그러니까 이거 자기는 그냥
높이지 않는 재귀칭이고

01:24:34.529 --> 01:24:36.295
높이려고 한다면 당신,

01:24:36.395 --> 01:24:39.187
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건강을
좀 챙기셔야 한다.

01:24:39.287 --> 01:24:42.425
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게
너, 이런 게 아니에요.

01:24:42.525 --> 01:24:44.117
전혀 그렇지 않습니다,
높이는 거예요.

01:24:44.217 --> 01:24:47.904
당신의 이미지가 그래서
문맥에 따라 되게 달라요.

01:24:48.004 --> 01:24:51.530
그래서 좀 쉬운 문제를 보게 되면,

01:24:51.630 --> 01:24:54.532
대명사의 범위 같은 거
우리 같은 경우에도

01:24:54.632 --> 01:24:57.843
예를 들면 친구한테
우리 영화 보러 갈래? 라고 하면

01:24:57.943 --> 01:24:59.804
그 우리는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?

01:24:59.904 --> 01:25:01.718
듣는 청자를 포함하는 거죠.

01:25:01.818 --> 01:25:05.342
그런데 우리끼리 영화 볼게,
이러면 무슨 의미예요?

01:25:05.442 --> 01:25:07.536

철수야 미안, 오늘은
우리끼리 볼게.

01:25:07.636 --> 01:25:09.869

이 이야기는 철수를 제외한
우리를 포함하는 거.

01:25:09.969 --> 01:25:11.821

나와 다른 사람을
이야기하는 거잖아요.

01:25:11.921 --> 01:25:14.957

그래서 우리의 범위에 대한
것도 문제화할 수 있었어요.

01:25:15.057 --> 01:25:17.099

이런 것들도 당연한 거죠.

01:25:17.199 --> 01:25:24.758

당신 했을 때 이 당신의 느낌이
문맥에 따라 높일지 낮출지

01:25:24.858 --> 01:25:26.477

다 느낌이 나옵니다.

01:25:26.577 --> 01:25:28.601

당신이 뭐를 알아?
이렇게 이야기하면

01:25:28.701 --> 01:25:30.430

좀 낮추는 느낌이 날
수 있는 거고요.

01:25:30.530 --> 01:25:33.384

당신을 그동안 혐오해왔습니다.

01:25:33.484 --> 01:25:35.430

이런 표현은 높여서 표현하는 거고.

01:25:35.530 --> 01:25:37.885

또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,
이런 식으로 쓴다면

01:25:37.985 --> 01:25:40.598

재귀칭이라고 사용하는
거고, 구분되지죠?

01:25:40.698 --> 01:25:43.806

이런 거예요.

01:25:43.906 --> 01:25:48.874

이제 기본적인 대명사의
종류는 알고는 있는 거고.

01:25:48.974 --> 01:25:53.599

개념은 알겠지만 그 대명사가
당신처럼 2인칭으로 쓰느냐,

01:25:53.699 --> 01:25:56.002

3인칭으로 쓰느냐가 달라지는 것처럼

01:25:56.102 --> 01:25:58.942

문맥에 따라 달라지는
놈들을 예를 들었습니다.

01:25:59.042 --> 01:26:00.448

그쪽 한번 가볼게요.

01:26:00.548 --> 01:26:01.696

전화 통화 중이에요.

01:26:01.796 --> 01:26:04.200

내가 그쪽으로 갈게.

01:26:04.300 --> 01:26:07.897

이때의 그쪽은 사람을
지시하는 인칭입니까?

01:26:07.997 --> 01:26:11.067

아니면 장소를 지시하는
장소 지시입니까?

01:26:11.167 --> 01:26:12.461

장소 지시죠.

01:26:12.561 --> 01:26:16.719

그런데 내가 그쪽으로 갈게, 여기서
그쪽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?

01:26:16.819 --> 01:26:20.388

전화를 받고 있는 청자가 있는
곳을 그쪽이라고 이야기한 거죠.

01:26:20.488 --> 01:26:22.085

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.

01:26:22.185 --> 01:26:23.650

옆에 있는 친구라고 했어요.

01:26:23.750 --> 01:26:26.885

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
내일 그쪽에서 볼까?

01:26:26.985 --> 01:26:29.627

이때 그쪽 역시 장소
지시 대명사인데

01:26:29.727 --> 01:26:34.224

이 장소는 지금 청자가
있는 곳은 여기니까

01:26:34.324 --> 01:26:37.630

청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
그쪽에서 볼까 하면 둘이 공유하고 있는

01:26:37.730 --> 01:26:40.548

제3의 공간을 이야기하는
그런 놈이 되죠.

01:26:40.648 --> 01:26:44.061

다음, 그쪽이 먼저
시비를 걸었잖아요?

01:26:44.161 --> 01:26:46.588
그러면 사람을 지칭하는 거 맞죠.

01:26:46.688 --> 01:26:48.435
몇 인칭입니까? 2인칭.

01:26:48.535 --> 01:26:52.341
그래서 그쪽이 먼저 시비 거셨잖아요,
2인칭으로 쓰인 겁니다.

01:26:52.441 --> 01:26:54.989
또 그쪽에서 얼마나 준다고 했어요?

01:26:55.089 --> 01:26:57.854
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
청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

01:26:57.954 --> 01:27:02.675
청자가 알고 있는, 화자와 공유하고
있는 제3자를 이야기하는 거죠.

01:27:02.775 --> 01:27:06.255
그래서 위에 2개는 지시,
밑에 2개는 인칭인데

01:27:06.355 --> 01:27:08.724
또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.

01:27:08.824 --> 01:27:10.404
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
수 있다는 겁니다.

01:27:10.504 --> 01:27:13.096
그래서 문맥에 따라서
대명사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

01:27:13.196 --> 01:27:14.909
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01:27:15.009 --> 01:27:22.684
이 문장 교과서 한 종에서 나와서
끄집어냈었는데 2개 비교해보세요.

01:27:22.784 --> 01:27:26.944
위에 자기랑 밑에 자기.

01:27:32.787 --> 01:27:34.450
이렇게 처리됩니다.

01:27:34.550 --> 01:27:38.638
품사를 물어볼 때 밑에
있는 거는 대명사입니다.

01:27:38.738 --> 01:27:44.212
자기라는 품사가 대명사가 있고

01:27:44.312 --> 01:27:47.074
그리고 명사가 있어요.

01:27:47.174 --> 01:27:48.773
애 대명사.

01:27:48.873 --> 01:27:52.573
이 자기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
재귀칭으로밖에 쓰일 수가 없는데,

01:27:52.673 --> 01:27:54.055
대명사로 쓰였다면.

01:27:54.155 --> 01:27:55.604
앞에 지금 그가 제시됐죠?

01:27:55.704 --> 01:27:59.484
그는 뭐든지 그의 마음대로, 결국
이게 그를 이야기하는 거죠?

01:27:59.584 --> 01:28:04.449
그렇다면 앞에 나왔던 3인칭 대상을
다시 한 번 언급하기 싫기 때문에

01:28:04.549 --> 01:28:09.548
이야기하는 3인칭 재귀
대명사가 되는 거예요.

01:28:09.648 --> 01:28:14.500
그런데 여기서 자기를
극복하는 사람이 승리한다.

01:28:14.600 --> 01:28:16.826
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.

01:28:16.926 --> 01:28:24.911
3인칭을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
자기 자신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죠.

01:28:25.011 --> 01:28:28.869
앞에서 언급된 제3자를 다시 한 번
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.

01:28:28.969 --> 01:28:33.425
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
사람, 명사로 쓰였다는 겁니다.

01:28:33.525 --> 01:28:35.917
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.

01:28:36.017 --> 01:28:37.224
품사가 달라지는 거.

01:28:37.324 --> 01:28:40.358
즉 자기를 사전에 찾게
되면 명사와 대명사,

01:28:40.458 --> 01:28:42.560
이렇게 2개의 품사를
같이 가지고 있는 거여서

01:28:42.660 --> 01:28:46.387
문장에 따라서 쓰임이

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.

01:28:46.487 --> 01:28:52.351
대명사의 마지막은 미지칭과 부정칭이라는 표현이 더 있습니다.

01:28:52.451 --> 01:28:56.756
이 미지칭과 부정칭은 인칭이나 지시 대명사에

01:28:56.856 --> 01:28:59.220
고정되어있는 거는 아니에요.

01:28:59.320 --> 01:29:00.454
정리해볼게요.

01:29:00.554 --> 01:29:09.182
미지칭이라는 것은 아직 미 자에 그다음에 알 지 자를 써서

01:29:09.282 --> 01:29:15.490
아직 알지 못한다.

01:29:15.590 --> 01:29:19.297
이런 대상에 대해서 쓸 때는 미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.

01:29:19.397 --> 01:29:32.620
그다음에 부정칭이라는 것은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

01:29:32.720 --> 01:29:35.323
부정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.

01:29:35.423 --> 01:29:39.129
그래서 정하지 않음.

01:29:39.229 --> 01:29:42.047
사실 부정칭 표현은 좀 쉬울 수 있어요.

01:29:42.147 --> 01:29:48.135
그 뒤에 정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조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.

01:29:48.235 --> 01:29:49.697
위에 한번 볼게요.

01:29:49.797 --> 01:29:53.382
지금 여기에 누가는 누구가의 준말로 쓰이는 거니까

01:29:53.482 --> 01:29:54.890
누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.

01:29:54.990 --> 01:29:56.969
똑같은 누구 있고 똑같은 무엇 있고

01:29:57.069 --> 01:30:00.634
똑같은 언제, 언제, 언제가 나와 있는데.

01:30:00.734 --> 01:30:02.615
어떻게 지금 다른지 가보겠습니다.

01:30:02.715 --> 01:30:04.235
위에 가보겠습니다.

01:30:04.335 --> 01:30:07.356
에이, 누가 방귀 끼었어?

01:30:07.456 --> 01:30:11.912
이때 지금 말하는 사람이
방귀 냄새를 맡았잖아요.

01:30:12.012 --> 01:30:13.294
자기는 아니고.

01:30:13.394 --> 01:30:15.032
누구야? 나 분명 맡았거든?

01:30:15.132 --> 01:30:18.027
그런데 이 냄새의 주인은
모르겠어, 누구야?

01:30:18.127 --> 01:30:22.049
이거 미지칭일까요, 부정칭일까요?

01:30:22.149 --> 01:30:25.836
이거죠, 정하지 않은 게
아니라 정체를 모르니까

01:30:25.936 --> 01:30:28.550
그 정체를 모르는 대상을
누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.

01:30:28.650 --> 01:30:35.062
그래서 이 누가라고 할 때 누구는 바로
미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

01:30:35.162 --> 01:30:36.419
그런데 그 밑에 거.

01:30:36.519 --> 01:30:39.046
이 문제는 누구라도 풀 수 있겠다.

01:30:39.146 --> 01:30:42.594
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
누구라도 풀 수 있겠다.

01:30:42.694 --> 01:30:48.808
그러니까 정한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
모두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

01:30:48.908 --> 01:30:53.602
그래서 애가 부정칭으로
쓰인 게 됩니다.

01:30:53.702 --> 01:30:57.162
다음, 배가 고프니
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다.

01:30:57.262 --> 01:30:59.468
줄여서 뭐라도, 이렇게 가겠죠.

01:30:59.568 --> 01:31:02.316
무엇이라도 먹어야겠다,
뭐라도 먹어야겠다.

01:31:02.416 --> 01:31:06.495
이런다면 이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,
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.

01:31:06.595 --> 01:31:10.193
그러면 애가 뭐가 된다?
부정칭이구나.

01:31:10.293 --> 01:31:12.836
와, 저 그룹 이름이 무엇이니?

01:31:12.936 --> 01:31:16.216
이렇게 물어본다면
보이는 그룹은 있는데

01:31:16.316 --> 01:31:18.060
그 그룹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

01:31:18.160 --> 01:31:21.648
알지 못하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
무엇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.

01:31:21.748 --> 01:31:24.916
그래서 애는 미지칭.

01:31:25.016 --> 01:31:26.710
그러면 질문.

01:31:26.810 --> 01:31:28.205
문장을 만들어볼게요.

01:31:28.305 --> 01:31:34.342
이번에는 장소 지시 대명사 중에서
여기, 저기, 그곳, 이곳, 저곳

01:31:34.442 --> 01:31:37.169
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
또 속하는 것들 중에

01:31:37.269 --> 01:31:40.303
어디라고 하는 장소 지시
대명사가 존재하거든요.

01:31:40.403 --> 01:31:44.816
어디를 이용해서 애가 미지칭인지
부정인지 판단해보세요.

01:31:44.916 --> 01:31:48.486
택시에 탔습니다.

01:31:48.586 --> 01:31:51.980
그런데 택시 기사님께서
손님한테 물어본 거예요.

01:31:52.080 --> 01:31:54.915

손님, 안녕하세요?
어디로 모실까요?

01:31:55.015 --> 01:31:57.338

어디로 모실까요?
이렇게 물어봤어요.

01:31:57.438 --> 01:32:02.210

이때 어디는 미지칭일까요,
부정칭일까요?

01:32:02.310 --> 01:32:06.460

정답은 미지칭이죠. 왜?

01:32:06.560 --> 01:32:09.086

어디 돈 내고 가려고 탔죠.

01:32:09.186 --> 01:32:13.081

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가려는 곳을
모르니까 몰라서 물어봤잖아요.

01:32:13.181 --> 01:32:16.489

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모실까요?
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.

01:32:16.589 --> 01:32:19.087

그러니까 이때 어디는
미지칭으로 쓰였어요.

01:32:19.187 --> 01:32:22.871

그랬더니 이제 손님이
등을 탁 기대면서

01:32:22.971 --> 01:32:27.451

어디든지 가주세요.

01:32:27.551 --> 01:32:31.156

이런 거 있잖아, 바람 쐬고
싶다고 어디든지 가주세요.

01:32:31.256 --> 01:32:33.192

돈이 찍어나는 거야, 택시를 타고.

01:32:33.292 --> 01:32:36.576

어쨌든 어디든지 가고 싶다할
때 어디는 뭐예요?

01:32:36.676 --> 01:32:40.561

정해놓은 거는 아니잖아요, 그러니까
부정칭으로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.

01:32:40.661 --> 01:32:42.661

밑에 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

01:32:42.761 --> 01:32:44.845

언제가 3개가 표시되어있는데.

01:32:44.945 --> 01:32:47.666

독서 감상문은 언제까지
제출해야 하나요?

01:32:47.766 --> 01:32:51.682

이렇게 할 때 언제는
미지예요, 부정이에요?

01:32:51.782 --> 01:32:55.141

시간을 몰라요, 정확한
날짜를 모르기 때문에

01:32:55.241 --> 01:32:56.545

대체하는 말로 쓴 거예요.

01:32:56.645 --> 01:32:58.761

따라서 이때의 언제는
뭐가 되는 거다?

01:32:58.861 --> 01:33:02.941

바로 미지칭이라고 봐야 되겠죠.

01:33:03.041 --> 01:33:06.352

밑에 내 도움이 필요하면
언제든지 찾아 와.

01:33:06.452 --> 01:33:11.390

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때는
아무 때나가 되는 거예요.

01:33:11.490 --> 01:33:12.815

정하지 않았습시다.

01:33:12.915 --> 01:33:16.324

그러니까 애는 부정칭이에요.

01:33:16.424 --> 01:33:20.310

그러면 세 번째, 치킨은
정말 언제 먹어도 맛있어.

01:33:20.410 --> 01:33:24.915

이렇게 이야기하면
애는 뭐가 될까요?

01:33:25.015 --> 01:33:31.130

애는 품사가 뭐냐면 관형사입니다.

01:33:31.230 --> 01:33:37.475

우리 지금 이렇게 다 이야기했던
거, 이거 전부 다 뭐예요?

01:33:37.575 --> 01:33:40.004

대명사로 쓰이는 단어들이예요.

01:33:40.104 --> 01:33:43.501

그런데 이거는 대명사가 아닌 거야.

01:33:43.601 --> 01:33:47.340

왜냐하면 명사든 대명사든
수사든 체언의 경우에는

01:33:47.440 --> 01:33:51.177

뒤에 조사가, 여기 지금
까지라든지 든지라든지

01:33:51.277 --> 01:33:54.574

이런 조사들이 다 붙어있는
상태란 말이에요.

01:33:54.674 --> 01:33:57.384

그런데 애는 지금
조사가 안 붙어 있고

01:33:57.484 --> 01:34:05.558

다시, 용언을 꾸며주는 품사거든요.

01:34:05.658 --> 01:34:07.473

그래서 부사라고 합니다.

01:34:07.573 --> 01:34:09.653

그래서 언제 먹냐, 언제 먹다.

01:34:09.753 --> 01:34:12.943

이럴 때 이때 용언을 꾸며주고
있는 거기 때문에 부사.

01:34:13.043 --> 01:34:16.328

그래서 일부 단어들은
이렇게 형태가 같다고

01:34:16.428 --> 01:34:19.198

무조건 품사 하나, 이렇게
잡을 수가 없는 거죠.

01:34:19.298 --> 01:34:20.974

그래서 기능을 좀 보셔야 됩니다.

01:34:21.074 --> 01:34:22.723

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하시라고

01:34:22.823 --> 01:34:26.455

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사도
있다는 점 설명해드렸습니다.

01:34:26.555 --> 01:34:31.583

대명사 부분은 사실 너무 딱딱하게
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.

01:34:31.683 --> 01:34:34.221

이렇게 인칭이나 지시성을 나타내주고

01:34:34.321 --> 01:34:36.327

또 채귀칭, 미지칭, 부정칭.

01:34:36.427 --> 01:34:39.075

풍부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
이, 그, 저의 거리감.

01:34:39.175 --> 01:34:44.076

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
나올 때에는 섞어서 담화문,

01:34:44.176 --> 01:34:47.503

대화 형태로 주면 그중에
일부를 내고 그런 구성.

01:34:47.603 --> 01:34:51.443
기출을 풀어보면 적용이 될 겁니다.

01:34:51.543 --> 01:34:56.761
대명사에서 공부한 개념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.

01:34:56.861 --> 01:34:59.296
이제 마지막 수사가 될 텐데.

01:34:59.396 --> 01:35:02.965
수사는 우리 처음 도입 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

01:35:03.065 --> 01:35:04.892
그것만 헛갈리지 않으면 돼요.

01:35:04.992 --> 01:35:09.133
수사가 수개념은 맞지만 관형사랑은

01:35:09.233 --> 01:35:12.001
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

01:35:12.101 --> 01:35:16.587
그래서 수사에는 총 크게 두 종류.

01:35:16.687 --> 01:35:18.355
그냥 세는 거예요.

01:35:18.455 --> 01:35:20.698
수량을 세는 양수사가 있고요.

01:35:20.798 --> 01:35:23.932
그다음에 순서를 세는 서수사.

01:35:24.032 --> 01:35:29.788
다시, 애는 수량과 관련된 정보고요.

01:35:29.888 --> 01:35:33.193
그다음에 서수사는 순서와 차례를 이야기해주는 거죠.

01:35:33.293 --> 01:35:37.556
양수사의 경우에는 고유어 계열하고

01:35:37.656 --> 01:35:43.364
한자어 계열이 있어요.

01:35:53.876 --> 01:35:56.571
이 정도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35:56.671 --> 01:36:00.017
고유어는 양수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

01:36:00.117 --> 01:36:04.067
고유어 하나, 둘 어려운 것도 아니죠.

01:36:04.167 --> 01:36:14.589

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..
열, 열하나, 열둘.

01:36:14.689 --> 01:36:16.620

이렇게 되는 거죠.

01:36:16.720 --> 01:36:19.101

한자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

01:36:19.201 --> 01:36:30.516

일, 이, 삼, 사, 오...
십, 십일, 십이.

01:36:30.616 --> 01:36:35.831

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에 수사를
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?

01:36:35.931 --> 01:36:37.491

그렇지는 않겠죠.

01:36:37.591 --> 01:36:40.728

수사를 모두 사전에 다
등재하면 사전 양이,

01:36:40.828 --> 01:36:44.112

그래서 적당하게만 실어주는 거예요.

01:36:44.212 --> 01:36:47.226

그렇다고 이백오십삼 이게
사전에 있을 리가 없거든요.

01:36:47.326 --> 01:36:49.822

그런데 이백오십삼은 단어가
아니냐, 그럴 수는 없죠.

01:36:49.922 --> 01:36:52.771

개도 역시 수사, 이렇게
인정하면 되겠습니다.

01:36:52.871 --> 01:36:59.964

서수사 역시도 이렇게 고유어
계열하고 한자어 계열이 있어요.

01:37:00.064 --> 01:37:03.391

사실 고유어 계열까지는
문제가 없는데

01:37:03.491 --> 01:37:07.563

한자어 계열이 국립국어원에서
인정을 안 합니다.

01:37:07.663 --> 01:37:12.130

그런데 학교 문법에서 가르칠 때는
대부분 한자어 계열을 인정하니까

01:37:12.230 --> 01:37:14.002

이거는 좀 주의를
하셔야 될 거예요.

01:37:14.102 --> 01:37:16.739

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에게
한번 다시 여쭙보는 게,

01:37:16.839 --> 01:37:18.779

기준을 뭐를 잡아야 되느냐?

01:37:18.879 --> 01:37:23.651

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내는
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.

01:37:23.751 --> 01:37:30.161

수능에서라면 출제를 할 때 국립국어원도
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.

01:37:30.261 --> 01:37:32.180

그래서 함부로 내지는 못할
겁니다, 이 부분은.

01:37:32.280 --> 01:37:34.824

그러나 학교 내신에서는
낼 거 아니에요.

01:37:34.924 --> 01:37:37.792

그래서 선생님에게 어느
입장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?

01:37:37.892 --> 01:37:39.374

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.

01:37:39.474 --> 01:37:42.299

어쨌든 애의 경우에는 수사일 수도
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.

01:37:42.399 --> 01:37:43.908

국립국어원 기준은 아니고

01:37:44.008 --> 01:37:47.334

학교 문법에서는 주로 수사로
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.

01:37:47.434 --> 01:37:51.203

고유어 계열 같은 경우에는
어떻게 하면 되냐면,

01:37:51.303 --> 01:37:54.983

뒤에 짜라는 접미사, 아직
우리는 용어를 모릅니다.

01:37:55.083 --> 01:37:58.133

접미사가 뭔지는 모르는데
뒤에 붙이는 거예요.

01:37:58.233 --> 01:38:02.588

어떠한 단어가 있으면 거기 뒤에
붙여서 또다른 단어를 만들어내.

01:38:02.688 --> 01:38:06.123

이게 이제 접미사라는 건데, 짜라는
접미사를 붙이는 방식이에요.

01:38:06.223 --> 01:38:09.680

만약에 한자어라고 한다면
어떻게 하면 되냐면

01:38:09.780 --> 01:38:16.290

제라는 접두사, 역시
이것도 한자입니다.

01:38:16.390 --> 01:38:18.839

1음절 한자어 제인데,
제를 앞에 붙이는

01:38:18.939 --> 01:38:22.353

접두사를 붙이는 방식이 돼요.

01:38:22.453 --> 01:38:25.181

그러면 어떤 단어들 만들어집니까?

01:38:25.281 --> 01:38:27.219

여기는 쟈를 붙이는 거니까.

01:38:27.319 --> 01:38:28.571

하나쟈라고 하지는 않죠.

01:38:28.671 --> 01:38:30.817

뭐라고 합니까?

01:38:30.917 --> 01:38:36.864

첫째, 둘째, 셋째,
주의하셔야 돼요.

01:38:36.964 --> 01:38:38.545

두째 아니죠, 둘째, 셋째.

01:38:38.645 --> 01:38:45.959

그다음에 넷째, 다섯째....
가다가 여기 붙게요.

01:38:46.059 --> 01:38:48.541

여기 보면 열째 이러면 되는 거죠.

01:38:48.641 --> 01:38:51.602

그다음 거예요, 이거 주의.

01:38:51.702 --> 01:38:57.598

열첫째는 아니니까
뭐라고 해야 돼요?

01:38:57.698 --> 01:39:01.954

열하나째, 이러면 되는 거죠?

01:39:02.054 --> 01:39:04.294

맞아요, 아니에요? 아니에요.

01:39:04.394 --> 01:39:05.584

어떻게 해야 돼요?

01:39:05.684 --> 01:39:08.237

열한째, 이렇게 해야 됩니다.

01:39:08.337 --> 01:39:15.241

그다음에 열둘째 아니고
열두째, 이렇게 가야 돼요.

01:39:15.341 --> 01:39:16.408
잘 보세요.

01:39:16.508 --> 01:39:18.527
그러니까 애는 지금
열두째, 열세째 하면서

01:39:18.627 --> 01:39:20.027
여기에 있는 받침들은 빠져요.

01:39:20.127 --> 01:39:23.071
그래야지만 애네들이 수사구나,
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

01:39:23.171 --> 01:39:25.826
열한째 역시 열하나째라고
하면 안 되고

01:39:25.926 --> 01:39:27.953
수사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.

01:39:28.053 --> 01:39:32.159
다음 한자어 계열로는 제가
붙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.

01:39:32.259 --> 01:39:42.889
여기에 제일, 제이, 제삼, 제사, 제오...
제십, 제십일

01:39:42.989 --> 01:39:44.880
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.

01:39:44.980 --> 01:39:49.722
여러분, 이게 몰랐을 때는
이런 오해 많이 했을 거예요.

01:39:49.822 --> 01:39:53.567
예를 들면 제3차
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

01:39:53.667 --> 01:40:01.032
제 3차 세계 대전, 이런 식으로
쓰면 이거는 근본없는 표기예요.

01:40:01.132 --> 01:40:03.466
띄어 쓰기가 완전 말이
안 되는 표현입니다.

01:40:03.566 --> 01:40:05.511
어떻게 써줘야 된다고요?

01:40:05.611 --> 01:40:09.259
제3이라는 것이 단어가
되는 거기 때문에

01:40:09.359 --> 01:40:13.176
제3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
띄어서 차가 되는 게

01:40:13.276 --> 01:40:14.900
원래 일반적 구성입니다.

01:40:15.000 --> 01:40:18.671
그래서 제3 차 또는
띄어 쓰기 규정에 의해서

01:40:18.771 --> 01:40:21.905
이럴 때 숫자 뒤에 있는 높도
붙여도 상관없다고 하거든요.

01:40:22.005 --> 01:40:23.961
그래서 이렇게도 되고

01:40:24.061 --> 01:40:25.638
이렇게도 되는데

01:40:25.738 --> 01:40:28.058
이렇게 제량 3은 띄는 경우는
절대 쓰면 안 돼요.

01:40:28.158 --> 01:40:30.350
왜냐하면 제는 접두사이기 때문에

01:40:30.450 --> 01:40:33.652
항상 붙여만 써야 된다고
알면 되겠습니다.

01:40:33.752 --> 01:40:36.523
그래서 이런 구성들로
만들어지는 건데.

01:40:36.623 --> 01:40:42.986
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줘야
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.

01:40:43.086 --> 01:40:45.606
봅시다.

01:40:45.706 --> 01:40:49.266
일단 저쪽을 보도록 할게요,
이거를 마무리하면서.

01:40:49.366 --> 01:40:51.265
사과 다섯에 얼마예요?

01:40:51.365 --> 01:40:54.260
이때 사과 다섯은 수사 맞죠?

01:40:54.360 --> 01:40:56.018
조사 붙였고요.

01:40:56.118 --> 01:40:57.520
그리고 수를 세는 개념입니다.

01:40:57.620 --> 01:41:02.975
그래서 이거는 고유어 계열의
양수사라고 보면 되겠죠.

01:41:03.075 --> 01:41:06.337

여러분, 일 더하기 일은 뭐죠?

01:41:06.437 --> 01:41:10.304

한자어 계열로 일과
일, 잡아준 거죠.

01:41:10.404 --> 01:41:12.566

역시나 수사.

01:41:12.666 --> 01:41:17.232

다음, 두 가지를 지켜라.
첫째, 속이지 마라. 둘째, 놀지 마라.

01:41:17.332 --> 01:41:19.921

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, 지금 안창호
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.

01:41:20.021 --> 01:41:22.938

그래서 젊은이들은 속이지
말고 놀지 말래요.

01:41:23.038 --> 01:41:25.655

계속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
정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.

01:41:25.755 --> 01:41:28.464

그러면 첫째, 둘째 이렇게
나왔으니까 애는 뭐다?

01:41:28.564 --> 01:41:29.915

수사, 이렇게 보면 되겠죠.

01:41:30.015 --> 01:41:31.228

이거는 서수사.

01:41:31.328 --> 01:41:35.174

우리의 이념은 제일은
진리이고 제이는 정의이다.

01:41:35.274 --> 01:41:38.367

이랬을 때 한자어 계열의
접두사인 제를 붙여서

01:41:38.467 --> 01:41:42.133

역시나 수사 잡혔습니다,
애네들 지금 수사예요.

01:41:42.233 --> 01:41:44.970

그러면 밑에 있는 두 문장에서

01:41:45.070 --> 01:41:49.530

먼저 위에 있는 문장에
수사 뭘까요?

01:41:49.630 --> 01:41:52.485

친한 친구 몇몇과
함께 병문안을 갔다.

01:41:52.585 --> 01:41:54.040

여기서 수사가 있어요?

01:41:54.140 --> 01:41:57.231

그래요, 수사가 정확한
숫자가 아니라도

01:41:57.331 --> 01:42:00.410

수의 개념인 놈들이
수사일 수 있습니다.

01:42:00.510 --> 01:42:05.164

그래서 여기서는 몇몇, 예를
들면 이 자리에 둘, 셋, 넷.

01:42:05.264 --> 01:42:06.776

이런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.

01:42:06.876 --> 01:42:09.277

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는
이야기 안 했지만

01:42:09.377 --> 01:42:12.465

그런 수와 관련된 개념이니까
몇몇은 수사가 되는 겁니다.

01:42:12.565 --> 01:42:16.601

또 이 줄 열두째에 앉은
아이가 내 친구야.

01:42:16.701 --> 01:42:22.423

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줄
열두째에, 라고 했으니까

01:42:22.523 --> 01:42:23.936

이게 지금 수사의 개념이죠.

01:42:24.036 --> 01:42:26.174

그런데 지금 형태 잘 보셔야 돼요.

01:42:26.274 --> 01:42:29.584

열두째가 아니라 십 이상으로
올라가게 되면 받침이 빠져요.

01:42:29.684 --> 01:42:32.842

그래서 열두째, 열세째,
열네째,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.

01:42:32.942 --> 01:42:34.854

그런데 이제 밑에 거 가볼게요.

01:42:34.954 --> 01:42:37.250

수사 문제에서는 이거를 좀
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겁니다.

01:42:37.350 --> 01:42:38.855

밑에 문장.

01:42:38.955 --> 01:42:42.333

우리 집은 푸들 한 마리와
불도그 다섯 마리를 키워.

01:42:42.433 --> 01:42:44.852

이거 외래어 표기법으로

불독이라고 쓰면 안 되고

01:42:44.952 --> 01:42:47.324

불도그라고 써야 됩니다.

01:42:47.424 --> 01:42:52.666

여기서 지금 수 개념이
애랑 애이기는 한데.

01:42:52.766 --> 01:42:56.466

처음에 도입부에서
가르쳐드렸던 것처럼

01:42:56.566 --> 01:43:01.806

애는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예요.

01:43:01.906 --> 01:43:04.303

관형사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

01:43:04.403 --> 01:43:07.167

그중에 하나인 수관형사에
해당하는 겁니다.

01:43:07.267 --> 01:43:11.033

따라서 수와 관련된 개념이 수사만
있는 게 아니고 수관형사도 있다.

01:43:11.133 --> 01:43:16.441

그러면 수사랑 수관형사는
구분을 어떻게 합니까?

01:43:16.541 --> 01:43:19.473

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
너무 어려운 게 아닌데.

01:43:19.573 --> 01:43:22.934

수사 뒤에는 보통
이렇게 조사가 붙거나

01:43:23.034 --> 01:43:25.899

아니면 연속적인 단위가
이렇게 나옵니다.

01:43:25.999 --> 01:43:29.113

그런데 그에 반해서 애는
떨어서 뭐하고 있어요?

01:43:29.213 --> 01:43:30.417

꾸미고 있잖아요.

01:43:30.517 --> 01:43:33.288

떨어서 뭐하고 있죠?
꾸미고 있잖아요.

01:43:33.388 --> 01:43:35.334

뭐를요? 이렇게 명사를요.

01:43:35.434 --> 01:43:37.920

단위성 의존 명사라는
이놈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.

01:43:38.020 --> 01:43:40.829
그래서 애네들은 뭐라고 한다?
관형사.

01:43:40.929 --> 01:43:45.424
명사를 꾸며주는 품사, 관형사,
수관형사, 수 관련이니까.

01:43:45.524 --> 01:43:48.995
그래서 수관형사라는 표현을
쓰는데 형태가 달라져요.

01:43:49.095 --> 01:43:53.085
잘 보셔야 되는데
여기서 추가합니다.

01:43:53.185 --> 01:43:58.687
만약에 수관형사를 여기에
한번 끼어 넣어볼게요.

01:43:58.787 --> 01:44:05.723
여기에 사람이라는 명사를
떼어서 꾸미는 자리,

01:44:05.823 --> 01:44:07.858
A 자리가 꾸민다고 봅시다.

01:44:07.958 --> 01:44:10.609
그러면 여기에 하나
사람이에요, 일 사람이에요?

01:44:10.709 --> 01:44:12.611
아니잖아요.
어떻게 씁니까?

01:44:12.711 --> 01:44:14.214
한 사람, 형태가 이렇게
되는 거잖아요.

01:44:14.314 --> 01:44:16.568
이거 지금 수관형사는
계열로 써볼게요.

01:44:16.668 --> 01:44:18.557
한 사람, 그다음에 두 사람.

01:44:18.657 --> 01:44:19.794
아예 형태 다르죠?

01:44:19.894 --> 01:44:21.146
세 사람, 형태 다르죠.

01:44:21.246 --> 01:44:23.013
네 사람, 형태 다르죠.

01:44:23.113 --> 01:44:25.310
그런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?

01:44:25.410 --> 01:44:31.587
다섯 사람이 형태가 똑같네요.

01:44:34.133 --> 01:44:36.967
이러면 형태가 애랑 똑같잖아요.

01:44:37.067 --> 01:44:39.322
그러면 문제를 다섯 주는 거야.

01:44:39.422 --> 01:44:43.703
이해되세요?

01:44:47.908 --> 01:44:52.937
어렵지 않아요, 이렇게
되는 거예요.

01:44:53.037 --> 01:44:56.304
똑같은 다섯이라고 해도
품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.

01:44:56.404 --> 01:45:01.055
위에 있는 다섯은 조사랑
붙어서 썼어요.

01:45:01.155 --> 01:45:04.368
그러니까 체언이고
애는 수사가 된다.

01:45:04.468 --> 01:45:09.131
밑에 있는 다섯은 띄어서
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

01:45:09.231 --> 01:45:12.667
이때는 관형사가 된다.

01:45:12.767 --> 01:45:16.707
그래서 지금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은
똑같은 형태를 취해주게 됩니다.

01:45:16.807 --> 01:45:21.599
그래서 이때는 이 다섯이나 그 이상이
나왔을 때 똑같아요, 여기서도.

01:45:21.699 --> 01:45:25.728
열둘, 열하나, 열 이런 식으로
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

01:45:25.828 --> 01:45:28.201
이거 째도 똑같아요, 보시면.

01:45:28.301 --> 01:45:39.319
가령 첫째 상자를 열어 봐,
이렇게 나가면

01:45:39.419 --> 01:45:41.964
이 첫째는 수사가 아니죠. 왜요?

01:45:42.064 --> 01:45:43.658
애는 지금 뭐를 꾸며줍니까?

01:45:43.758 --> 01:45:46.574
첫째가 상자를 꾸며주고
있는 거예요.

01:45:46.674 --> 01:45:50.664
그러니까 이때 상자라는 명사를
꾸며주는 이놈은 뭐라고 봐야 된다?

01:45:50.764 --> 01:45:53.432
관형사가 된다는 거죠.

01:45:53.532 --> 01:45:57.367
첫째 뭐하고 둘째 뭐하고 이런
식으로 쓴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?

01:45:57.467 --> 01:45:59.796
그때는 수사가 되는 거지만.

01:45:59.896 --> 01:46:04.473
그래서 형태들이 수사랑 수관형사로
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

01:46:04.573 --> 01:46:06.743
그거에 대한 것은 조사랑 붙이느냐,

01:46:06.843 --> 01:46:09.804
아니면 떨어져 꾸미느냐를
가지고 구분하셔야 되고요.

01:46:09.904 --> 01:46:14.761
마지막은 뭐에 걸리냐면 이놈입니다.

01:46:14.861 --> 01:46:22.541
꽤 많은 수가 단어가
중복될 수도 있어요.

01:46:22.641 --> 01:46:24.962
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
결합이 될 수도 있는데

01:46:25.062 --> 01:46:26.371
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.

01:46:26.471 --> 01:46:28.656
하나라고 하는 거는 아까
품사가 뭐였습니까?

01:46:28.756 --> 01:46:32.595
일단 하나는 수사죠.

01:46:32.695 --> 01:46:38.626
수사인데 애가 뭐로도 쓰일 수
있냐면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.

01:46:38.726 --> 01:46:41.148
예문을 하나 만들어볼게요.

01:46:41.248 --> 01:46:42.396
이런 식입니다.

01:46:42.496 --> 01:46:45.571
그게 1의 개념이 아니라면 그거는
명사로 처리하면 됩니다.

01:46:45.671 --> 01:46:53.439

네 농담 하나도 재미 없어.

01:46:53.539 --> 01:46:56.515

어떻게 생각해요?
1도 재미 없어요?

01:46:56.615 --> 01:46:57.949

그거 아니잖아요.

01:46:58.049 --> 01:47:00.565

그러니까 이럴 때 의미가
좀 새로워지잖아요.

01:47:00.665 --> 01:47:02.227

그러면 뭐로 보는 거다?

01:47:02.327 --> 01:47:07.641

이때는 명사로 존재하는
형태가 되는 겁니다.

01:47:07.741 --> 01:47:10.660

가령 첫째도 가볼게요.

01:47:10.760 --> 01:47:20.595

첫째는 무려 수사, 관형사,
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.

01:47:20.695 --> 01:47:24.170

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
될 수 있습니다.

01:47:24.270 --> 01:47:26.232

수사로 하는 경우에는
아까 이야기했죠?

01:47:26.332 --> 01:47:32.833

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
이렇게 나가면 수사예요.

01:47:32.933 --> 01:47:38.539

다음, 첫째 상자를 열어 봐.

01:47:38.639 --> 01:47:41.331

이러면 뭐예요? 관형사예요.

01:47:41.431 --> 01:47:42.613

이제 마지막입니다.

01:47:42.713 --> 01:47:45.374

첫째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
이러한 경우인데 보세요.

01:47:45.474 --> 01:47:58.057

운동화는 첫째로 발이 편해야 해.

01:47:58.157 --> 01:48:01.833

여기서 애가 명사로 쓰일 수밖에
없는 이유를 알려드리면

01:48:01.933 --> 01:48:03.586

이 문장이 여기서 끝난 상태예요.

01:48:03.686 --> 01:48:05.794

만약에 운동화는 첫째로
발이 편해야 하고

01:48:05.894 --> 01:48:08.125

둘째로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
셋째로 값이 싸야 돼.

01:48:08.225 --> 01:48:10.864

이러면 애는 수사예요.

01:48:10.964 --> 01:48:13.301

그래서 계속 문장이
더 이어지는 거야.

01:48:13.401 --> 01:48:17.451

그렇다면 첫 번째, 두 번째,
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

01:48:17.551 --> 01:48:20.376

즉 순서를 세기 위한
거니까 그때는 수사인데

01:48:20.476 --> 01:48:23.306

문장을 운동화는 첫째로
발이 편해야 돼.

01:48:23.406 --> 01:48:27.386

이렇게 딱 끝냈다, 그
이야기는 무엇보다도.

01:48:27.486 --> 01:48:29.824

둘째, 셋째의 개념은 전혀 없어.

01:48:29.924 --> 01:48:31.988

그냥 무엇보다도 이런
의미를 가지고 있으면

01:48:32.088 --> 01:48:34.409

이때는 뭐를 본다?
명사로 본다는 겁니다.

01:48:34.509 --> 01:48:41.229

이때 무엇보다도,
이런 의미로 쓴다면.

01:48:41.329 --> 01:48:43.334

또 이렇게도 가능해요.

01:48:43.434 --> 01:48:49.025

우리 첫째가 대학에 합격했어요.

01:48:49.125 --> 01:48:52.593

이거 무슨 뜻이야?

01:48:57.726 --> 01:49:02.479

우리 첫째가 대학에 합격했어요,
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?

01:49:02.579 --> 01:49:06.378

첫째가 첫째 아이를
뜻하는 표현이죠.

01:49:06.478 --> 01:49:09.269

이 첫째가 이야기하는
거는 그냥 첫째가 아니라

01:49:09.369 --> 01:49:15.121

첫째 아이, 첫째 자식을
이야기하는 거라고요.

01:49:15.221 --> 01:49:19.730

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순서를
세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

01:49:19.830 --> 01:49:21.852

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

01:49:21.952 --> 01:49:25.741

그랬을 때 이게 명사로
쓰일 수 경우라는 겁니다.

01:49:25.841 --> 01:49:29.857

여기까지가 수사, 수관형사,

01:49:29.957 --> 01:49:33.450

그리고 형태가 동일한 명사를
구분하는 거였고요.

01:49:33.550 --> 01:49:36.643

이쪽에서 조합을 해서 막
문제를 낼 텐데 어떻습니까?

01:49:36.743 --> 01:49:41.015

지금 채언만 해도 이렇게 깊이
공부해본 적도 없을 텐데.

01:49:41.115 --> 01:49:44.002

여러분 지금 굉장히 장시간
동안 강의를 했고

01:49:44.102 --> 01:49:46.891

여러분 끊어서 강의를
들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

01:49:46.991 --> 01:49:49.025

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,

01:49:49.125 --> 01:49:51.693

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하니깐
나도 열심히 들어야지 해서

01:49:51.793 --> 01:49:54.192

들은 분도 있겠지만
한 번 더 들어야 돼요.

01:49:54.292 --> 01:49:56.139

정리를 하면서 한 번
더 들어야 돼요.

01:49:56.239 --> 01:50:01.445

이 강의는 두 번 정도는 곱씹으면서
강의도 보고 공부를 해야

01:50:01.545 --> 01:50:04.126

자기 거로 확실하게
만들어놓지 않으면

01:50:04.226 --> 01:50:08.004

시간이 지나서 1년 지나서
6개월 지나서 또 까먹고

01:50:08.104 --> 01:50:10.686

또다시 보게 되고 또다시
봐야 될 것 같고

01:50:10.786 --> 01:50:13.273

또다시 봐야 되고 이런
일이 발생합니다.

01:50:13.373 --> 01:50:15.405

공부할 때 확실하게 해두면

01:50:15.505 --> 01:50:18.330

이거 두고 두고 여러분의 자산이
돼요, 재산이 됩니다.

01:50:18.430 --> 01:50:20.348

문법 진짜 잘해놓잖아요?

01:50:20.448 --> 01:50:22.767

그러면 너무 편한 거야.

01:50:22.867 --> 01:50:26.423

애들은 고3 끝까지 가도 힘들다는
게 문법인데, 아시겠죠?

01:50:26.523 --> 01:50:28.474

그래서 이 부분 특히
중요한 부분이니까

01:50:28.574 --> 01:50:30.342

선생님이 지금 강의
되게 길게 한 거예요.

01:50:30.442 --> 01:50:32.050

열심히 복습해주시기 바랍니다.

01:50:32.150 --> 01:50:33.861

수고하셨습니다.